이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OPEN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MAGAZINE

KOICA

2022 VOL.1

커버 스토리

튀니지 전자조달 확대,
더 투명한 기회의 나라로

기획특집

한국 정보통신기술(ICT)로
지키는 에콰도르의 생물다양성

통계

협력국 디지털 전환에
속도 높이는 코이카

통합적·전략적 개발협력을 위한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우리는 미래를 꿈꾸기에
세계에 희망을 뿌립니다.

지구는 여전히 질병과 기후변화, 물 부족,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역량과 비전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코이카는 교육, 보건의료, 교통, 과학기술혁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나아가 세계와 협력하겠습니다.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국가별 지원 프로그램과 해외봉사단 파견, 초청 연수, 국제기구 · NGO · 기업과의 협력, 재난복구와 긴급구호 등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ODA)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KOICA

Contents

MAGAZINE KOICA

서문

05 **코이카 디지털 전환, 협력국에 새로운 기회로**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

커버 스토리

06 **한국형 전자조달, 디지털 ODA 대표 브랜드로 부상**
중동·아프리카에 부는 한국형 전자조달 열풍

전자조달은 프로세스의 자동화와 비대면화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비용과 시간 절약 등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 중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우수 모델로 손꼽히며 지역 전체로 확산하여 자리잡고 있다.







기획특집

08 **국제개발협력과 디지털 전환의 기회와 도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길곤 교수

09 **개도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디지털 ODA**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전환

12 **디지털 전환이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교차 지점**
코이카 디지털 전환팀 정준영 대리

14 **협력국 디지털 전환에 속도 높이는 코이카**
통계로 보는 디지털 ODA 사업 현황

16 **교사 배움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아제르바이잔 미래 교실**
쌍방향 온라인 연수, 한국형 학생 주도 수업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18 **현장형 기술인재 양성으로 청년 실업률 낮추다**
이집트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사업

20 **베트남 ICT 분야의 핵심 인재를 키우다**
한베 ICT 대학교 지원 사업

22 **한국 정보통신기술(ICT)로 지키는 에콰도르의 생물다양성**
에콰도르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 지원

ODA국제회의

24 **새로운 포용적 파트너십으로 개발협력 지평 확대**
독특한 개발 경험 가진 한국, 선진국-개도국 잇는 중추 역할 다할 것





사업 리뷰

28 **건강 불평등 격차 좁히는 코이카 보건 ODA**
통계로 보는 코이카 2021 보건 분야 성과

30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24년간의 노력**
볼리비아 엘알또 한국병원 지원 프로젝트

32 **한국의 노하우 전수로 3차 병원 위상에 걸맞은 병원으로**
캄보디아 국립어린이병원 병동 신축 및 역량 강화 사업

34 **청소년 임신 문제 해결, 빈곤의 고리를 끊다**
도미니카공화국 미성년자 임신 방지 사업

36 **CHPS, 보건 강화 사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다**
가나 CHPS 기반의 지역보건체계 강화사업(CHPS+)

38 **농산물 가치사슬 강화로 농촌 빈곤 해결에 나서다**
콜롬비아 과채류 시장경쟁력 강화사업

40 **코로나19 극복과 그 이후를 준비하는 코이카**
개도국 코로나19 대응 위한 ABC 프로그램

42 **돌아간 네팔 노동자들의 재정착 돕는 코이카**
네팔 이주노동자 재정착 및 창업 지원 사업

44 **안전한 물로 아비장 빈민가에 희망을 퍼 올리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상수급수연결 사업

ODA 동향

46 **북반구 對 남반구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삼각협력의 주류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균 교수

48 **ODA 동향 알아보기**
주목할만한 ODA 연구

전체지원실적

49 **한눈에 보는 사업 실적**

기관소식

50 **KOICA NEWS 모아보기**
한눈에 보는 코이카 최신 이슈



코이카 디지털 전환, 협력국에 새로운 기회로



세계 2차대전 이후 최빈국(LDC) 중 하나였던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가운데에서 불과 한세대 만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이룩하였고,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한국의 개발 경험은 다른 협력대상국과 나눌 자산이 되었으며, KOICA는 이를 바탕으로 30여년의 기간 동안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여 왔습니다. 이제 30살이 넘어 장년이 된 KOICA는 한발 더 나아가 선진국형 개발협력 추진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를 비롯하여 기후위기, 분쟁과 난민의 증가, 자연재해, 경제위기 확산 등 세계는 전례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개발성과가 후퇴하고,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가 확대되며, 취약계층의 취약성(Vulnerability)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례없는 위기 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leaving no one behind)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동시에 여러 제약을 넘어선 창의적인 방법으로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적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확대는 개발협력에 있어서 디지털의 중요성을 확대시켰습니다. KOICA는 이를 반영하여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전략(2021-2025)을 수립하고, 사업과 경영의 디지털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측면에서는 ①디지털 주류화, ②디지털 핵심사업 추진, ③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추진기반 구축을 전략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역량개발을 직접 지원할 뿐 아니라,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 등의 디지털화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OECD가 교육 디지털화 우수사례로 선정한 아제르바이잔 교사역량 강화 사업, 튀니지 전자조달시스템 확대 사업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관 운영에서는 업무 수행의 전(全)주기에서의 디지털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의 디지털화 및 해외봉사단 및 초청연수에서의 온라인 방식을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며, 'KOICA Open Data Portal'을 오픈하여 KOICA의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로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원조데이터의 선제적 개방을 통해, 2022 국제원조투명성지수(ATI) 평가에서 우리 KOICA가 2회 연속 Good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KOICA의 개발협력 활동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창구인 MAGAZINE KOICA의 첫호에서는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앞당긴 비대면·디지털화는 개발도상국에게 위기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협력대상국이 행정, 교육,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ICT 분야에 강점을 가진 한국에게 디지털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MAGAZINE KOICA에서 보다 자세한 면면을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KOICA의 디지털 전환은 개도국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협력대상국의 SDGs 달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이 보다 선진국형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과 상생의 개발협력으로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KOICA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0월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손 혁 상**

손혁상



중동 · 아프리카에 부는 한국형 전자조달 열풍

한국형 전자조달, 디지털 ODA 대표 브랜드로 부상

전자조달은 프로세스의 자동화와 비대면화로 공공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주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이로 인해 세계 여러 국가가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한국형 전자조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우수한 전자조달 사업 모델로 손꼽히며, 지역 전체로 확산하기까지 그 과정을 들여다봤다.

튀니지, 아프리카 최초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아프리카 대륙 최북단에 위치한 튀니지는 2011년 1월, 재스민 혁명[1] 이후에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 활성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코이카는 튀니지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튀니지 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시범구축사업(2011-2013)'으로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모델로 한 '튀니지 공공조달 시스템(TUNEPS)'을 구축했다. 그 결과 2014년 100개였던 전자조달 등록업체 수가 2016년에 5000개로 증가했다. 이 전자조달 시스템은 2015년에 국제기구인 '열린정부 파트너십(OGP)[2]' 으로부터 '열린정부 아프리카지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차 사업의 성과를 인정한 튀니지 정부는 2018년 총리령으로 공공기관의 TUNEPS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는 전자조달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전환점이 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전자조달 시스템의 가치는 더욱 빛났다. 튀니지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물품의 90% 이상을 TUNEPS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통제 기간에도 물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코로나19 대응 전자조달의 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공공조달 네트워크에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한편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TUNEPS 확대와 시스템 개선이 시급해졌다. 튀니지 정부는 공공 전자조달 시스템 접근성 개선을 위한 후속 사업을 우리 정부에 요청해 왔다. 이에 코이카는 후속 사업인 '튀니지 전자조달 시스템 확대·개선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3년까지 250만 달러를 투입해 추진하는 '튀니지 전자조달 시스템 확대·개선사업'은 기존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확장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안정적이고 활용도 높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사용자 증가와 기술 변화에 대응해 가상화 서버 구축, 모바일 환경 구축, 인증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튀니지 정부가 TUNEPS를 온전히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 인적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코이카와 튀니지 정부는 위 사업을 통해 지방기업, 중소기업 등이 공공조달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위 사업이 공공조달 정책의 개혁을 뒷받침해 튀니지의 '2020 국가전략계획'에 따른 투명한 정부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튀니지 전자조달 사업 모델, 주변국으로 확산

튀니지의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성공하자, 인근 아랍 지역 주변국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

▸ 서도 협력 요청이 이어졌다. 코이카는 튀니지 사업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에서 한국형 전자조달 사업 모델을 확산해 갔다.

가장 먼저 요르단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50만 달러 규모의 '요르단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코이카는 요르단 정부와 협력해 요르단 내 56개로 분절돼 있던 조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조달 업무를 통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는 '요르단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사업 사후관리 사업'을 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튀니지, 요르단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던 이라크에서도 협력을 요청해 왔다. 이에 코이카에서는 600만 달러 규모의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 공공조달 현대화 사업'을 2018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2018년 개정한 공공조달법에 따라 기존 조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20년 코이카에 도움을 요청했다. 코이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790만 달러를 투입해 이집트 전자조달 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이카는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에 대한 중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협력 수요를 반영해 한국과 튀니지를 포함한 3개국이 참여하는 전자조달 삼각협력 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코이카는 요르단, 콩고, 세네갈 등 중동·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TUNEPS 구축과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삼각협력 연수를 여러 차례 진행해 왔다. 2022년에는 코이카의 전자조달 사업과 연계해 한국-튀니지-카메룬 전자조달 삼각협력 연수를 진행 중이다. 2023년에는 삼각협력 연수를 주변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튀니지와 주변국들과의 협력 체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동·아프리카 지역 내 디지털 ODA 대표 브랜드로

튀니지에서 시작해 요르단, 카메룬, 이집트까지 이어진 전자조달 사업과 한국-튀니지-카메룬 전자조달 삼각협력 연수는 한국형 전자조달 사업 모델의 잠재력과 우수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한국형 전자조달 모델을 이식한 튀니지 전자조달 사업은 지역 내 공공 전자조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한 각 나라의 성과도 괄목할 만하다. 세계은행(WB)의 평가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200일이 소요되던 튀니지의 조달 계약 기간은 TUNEPS 개통 후인 2014년 말에 140일로, 2016년 말에는 129일로 단축[3]됐다. 요르단의 경우 조달청 전체 입찰 거래 중 98%를 코이카가 지원한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 후 입찰 절차 소요시간이 건별 약 70시간 가량 감축되는 효과를 얻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공정성 증대, 포용적 사회 구현, 경제발전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목표 10번(불평등 완화)와 16번(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17번(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목표 달성에도 해당한다.

한국형 전자조달 사업은 중동·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한국의 디지털 ODA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다. 코이카는 한국형 전자조달 사업이 중동·아프리카 지역 내 국가 및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중동·아프리카 지역 발전 및 성장의 값진 밑거름이 되도록 전자조달 시스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K

1)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튀니지에서 일어난 반(反)정부 시위로, 이를 통해 24년간 계속된 독재정권이 붕괴했다. 튀니지의 나라꽃인 재스민에 빗대어 '재스민 혁명'이라고 한다. 2010년, 부패한 경찰의 노점상 단속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은 26살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의 분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2) Open Government Partnership :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정책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국제 네트워크. 2010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투명성, 부패 척결, 책임성 등을 가치로 2011년에 출범했으며, 현재는 서울특별시 등 20개국의 자치정부와 79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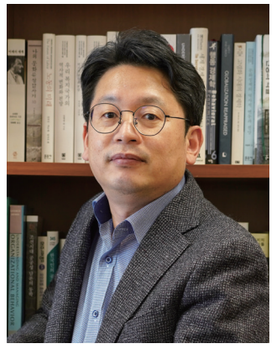
3) "IMPLEMENTATION COMPLETION AND RESULTS REPORT(IBRD-82100, IBRD-83580, IBRD-85360) (Report No: ICR00004324)" World Bank, May 15, 2018



사진 1 카메룬 전자조달 시스템 2차 사업 관련한 튀니지 삼각협력 초청연수 현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길곤 교수

국제개발협력과 디지털 전환의 기회와 도전



이력사항

고길곤 교수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코이카 장기석사 프로그램의 주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어낼릭틱스 분야와 정책분석/평가 분야 등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는 개발도상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초래한 비대면 사회의 경험은 온라인 수업에서 전자민원 처리에 이르기까지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행정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과거에 다양한 이유로 디지털 전환에 부정적이었던 조직과 개인들조차 코로나가 초래한 비대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칠레를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재해보상금 신청과 지원이 이루어졌고, 코트디부아르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개발도상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새로운 기술의 축적과 전파가 느릴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소수가 아닌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협력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개발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정부, 디지털 안전과 같은 4대 핵심 사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통신 인프라, 인터넷 인프라,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적 기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요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개발도상국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집행되었고, 적지 않은 성공 사례와 함께 실패의 경험 또한 우리는 갖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더라도 이 기술이 경제활동이나 행정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다.

정부의 문서 작성 시스템을 생각해 보자. 종이 문서에 작성되는 수많은 행정 서류를 디지털 문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하면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과 문서를 디지털 문서로 바꾸는 사람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안다면 바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면 된다. 따라서 초기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에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공급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부서별로 생산된 문서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부서 내에서조차 개인의 컴퓨터에 이런 문서가 따로 저장되면서 정보 공유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그 결과 각국에서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단순히 네트워크,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 디지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각종 법률과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전자정부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구축된 시스템도 주기적으로 개선해 주어야 하는 과제가 따른다. 또한 전자정부 시스템에 공무원이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규모 시스템 구축 사업 방식보다는 공무원의 활용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 협업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소규모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이 경험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빅데이터나 AI 기술의 활용 등도 이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해당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제도를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 중심의 전략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는 위협 요인도 상당히 많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간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원조 수원국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간의 연계와 조정이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디지털 전환의 전체 그림을 그려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추적하고 각 전환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흐름, 그리고 시스템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종합 관리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디지털 전환에 한국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기여할 수는 없다. 한정된 자원 속에 선택과 집중의 전략은 필수적이며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략을 개도국과 함께 고민하며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개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은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시도한 경험이 있고, 개도국의 상황에 맞게 디지털 전환의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개도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갈 우수 인력을 교육하는 프로그램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면 한국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K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전환

개도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디지털 ODA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 기관의 업무 방식, 고객 경험 등을 변화시키는 전사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코이카는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을 위한 기능전략으로 디지털 전환 전략(2021-2025)을 수립하고, ODA 사업과 기관 경영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코이카가 디지털 전환의 가속 페달을 밟은 이유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다. 2016년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수반한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됐으며,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1, 2, 3차 각 단계의 산업혁명은 생산 수단과 조직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이에 먼저 대응한 나라들은 막대한 부를 가져가는 동시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세계 각국과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다.

국제개발협력에서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은 중요한 화두다. 그러나 기술 격차, 디지털 접근성 비용 등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코이카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융합 ICT 지원 비중을 늘리고, 법제도 개선·디지털혁신 등 디지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간의 지원 성과를 후퇴시킨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급속도로 앞당기는 기폭제가 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코이카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필요성을 체감하며 2020년 7월, '디지털전환특별반'을 신설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디지털 전환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단계별 전략 및 세부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온라인 연수, 원격 봉사활동, 클라우드 시스템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제협력 방안을 신속하게 도입했다.

2021년은 디지털 전환의 원년,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다

코이카는 21년을 '디지털 전환이 시스템으로 자리잡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기관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ODA 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디지털 혁신센터'도 이사장 직속 부서로 신설하고, 디지털 전환의 4대 목표를 세웠다.

코이카의 디지털 4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반 ODA 사업 확산'이다. 디지털 핵심사업 추진과 주류화, 개발 협력 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확대가 주요 과제다. 둘째, '개발협력 분야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 참여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친화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 '사업관리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다. 프로세스 기반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통합사업관리시스템(IPM)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업무 활성화 기반 조성도 이뤄진다. ▸▸

사진 1



넷째, '디지털 중심의 경영 기반 혁신'이다.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디지털 기반 인프라 강화 등을 포함한다.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2대 과제, 33대 실행 과제도 함께 도출했다.

디지털 전환 전략에 따라 코이카는 보건·교육·공공행정·농촌개발 등 모든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에 디지털 요소를 포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페루에서는 건강보험 심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요르단에서는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치안 정보 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협력 대상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 지원이나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사업 방법에서도 모든 사업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가고 있다. 2021년에는 비대면 연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격 연수를 진행, 2021 웹어워드 코리아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외에서 인정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발간하는 해외 원조 분야의 대표적인 보고서 〈2021년 개발협력보고서〉에서 우수 사례로 조명되기도 했다.[1] 해외 원조 통계분석과 그 해 개발협력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이 보고서의 2021년 화두는 '디지털 전환 구현(Shaping a Just Digital Transformation)'이었다. 보고서는 특히 코이카가 디지털 핵심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는 점에 크게 주목했다.

고객정보 통합 관리, 개발 협력 데이터 구축 등 중점 추진

2022년 역시 디지털 ODA 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개발협력 분야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고객정보 통합 관리다. 고객관리는 담당자와 개별 부서에 의존해오던 측면이 강했다. 고객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정보 제공·소통 채널을 통합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 ODA 사업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개발협력 데이터 구축과 개방 활성화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데이터 개방 채널을 코이카 데이터와 지식 정보 채널로 통합하고, 학계·연구·기업·NGO 등에 개방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협력 데이터 포털은 구축 완료 상태로 1차 고도화를 앞두고 있다. 25년까지 단계별 오픈 데이터 포털 개선과 고도화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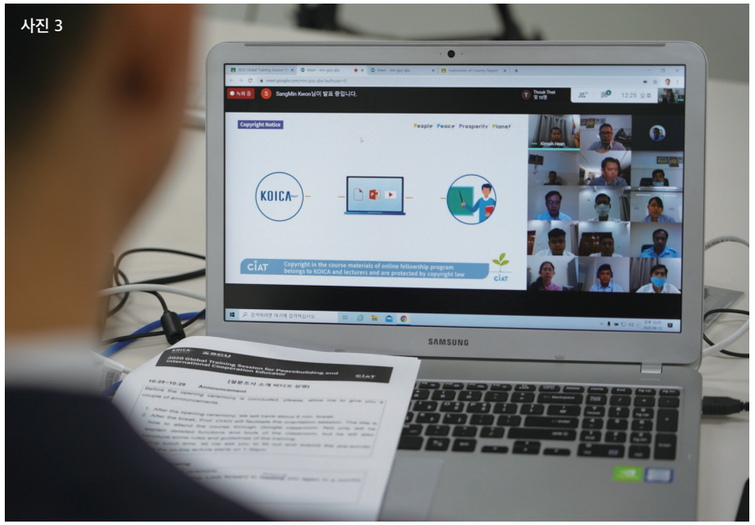
'사업 관리 방식의 디지털 전환'도 중요한 축이다. 특히 개발협력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검증 체계가 없어 데이터 표준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코이카는 '프로세스 기반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을 1차 목표로 삼고, 초안을 수립한 상태다. 통합사업관리시스템(IPM) 활용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별 협력사업에 한해 파일럿 실시도 완료했다.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는 차원을 넘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코이카는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으로서 ODA 사업에 디지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기관 자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K

사진 2



사진 3



1)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1 - Shaping a Just Digital Transformation」(코이카의 개발도상국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전략), OECD, 2021년 12월

사진 1 KOICA 전경 사진

사진 2 코이카 디지털 전환 지원을 소개한 OECD DAC 회원국 학습플랫폼 '개발협력 TIPs'

사진 3 서울사이버대학교-캄보디아 온라인 연수 모습

KOICA는 사업 관련 각종 데이터를 여러 플랫폼을 통해 공유 및 개방하고 있습니다.

KOICA 데이터	KOICA 개발협력 오픈데이터 포털	oda.go.kr	사업대상국 개황, 개발지표 SDGs 현황 데이터
	KOICA 통계 홈페이지	stat.go.kr	사업대상국별, 사업유형별 KOICA 지원 실적 통계
	ODA 도서관	lib.koica.go.kr	KOICA 사업보고서, 연구발간물 등 비정형데이터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kr	사업대상국별 안전이슈, 생활정보, 민관협력사업목록 등
	대표홈페이지- 지식서비스	koica.go.kr	사업대상국에서 실시된 국별협력사업 주요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open.go.kr	기타 개방되지 않은 문서 및 기록물 열람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data.go.kr	기타 개방되지 않은 공공데이터
	KOICA 데이터혁신팀	data@koica.go.kr	원하는 데이터 검색, 신청 절차가 어려운 경우 KOICA 데이터혁신팀 문의
KOICA 데이터 연계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	dream.kotra.or.kr	해외시장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품목별, 국가별, 진출단계별로 제공
	해외안전융합정보	stat.go.kr	해외 사건사고에 선제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외안전 유관 데이터 제공



코이카 디지털 전환팀 정준영 대리

디지털 전환이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교차 지점

코이카는 2021년에 디지털 전환 전략(2021-2025)을 수립하고, 이사장 직속 부서로 디지털혁신센터를 신설해 전사적 규모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다. 디지털혁신센터 디지털 전환팀은 전사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코이카 전체는 물론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단계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디지털 전환팀에서 디지털 전환 혁신 및 변화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준영 대리에게 코이카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의 방향과 현황에 대해 들어봤다.

디지털 전환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코이카가 추구하는 디지털 전환의 방향이나 타 기관과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디지털 전환은 코이카 전체의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으며, 코이카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해마다 발행하는 〈개발협력 분야 보고서〉에 코이카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이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코이카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타 기관에 비해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이루고자 노력 중이며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코이카 '디지털 혁신의 날' 행사에서 4가지 디지털 전환 전략이 공유됐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코이카의 디지털 전환 전략 4대 목표 중 첫 번째는 '디지털 기반 ODA 사업 확산'입니다. 협력국의 디지털 전환을 직접 지원하는 ICT 분야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하고, 이에 기반이 되는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개발협력 분야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핵심 키워드는 '고객'입니다. 협력국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 기업 등도 코이카의 고객인데요.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사업방식의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그 지역에 더 적합한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전자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 스케줄 및 성과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비대면 방식을 더 많이 활용하는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중심의 경영기반 혁신'은 위에 말씀드린 것 외에 코이카 내부 경영과 관련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디지털 업무혁신 과제'도 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과 기준, 그리고 과제의 내용도 궁금합니다.

코이카에서는 지난 5월과 6월, 'Change KOICA(체감 가능한 변화)'라는 슬로건 아래 코이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주간'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17개 부서에서 무려 21개의 과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시급성·파급성·혁신성·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6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올 하반기 내로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디지털 업무혁신 과제

1.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한 파견직원 급여/수당 산출 자동화
2. 시스템을 통한 해외사무소 개발협력인재 복무 관리
3. 국별협력사업 예결산 관리 효율화
4. 해외사무소 통합 매뉴얼 FAQ 헬프데스크 구현
5. 협업 툴을 활용한 국별협력사업 회계정산 개선
6. 전자결재시스템 연계성 개선

대부분 업무에 관련된 소규모 과제이지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 자체로 그 의미가 큽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대보다 훨씬 높은 참여율을 보며 '코이카의 디지털 전환이 진짜 이뤄지고 있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고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사업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년까지 이라크 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라크 사무소에서는 이라크 최초의 중환자 전문 병원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위 사업에 디지털 혁신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시공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실제 시공 전에 지형, 기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시공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4대의 CCTV를 활용한 원격 시공 시스템을 통해 건축 담당자인 CM[1]이 현지에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시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CM이 현지에 항상 머물러 있지 않았음에도 시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협력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 사례도 궁금합니다.

다양한 디지털 전환 사업 중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에서 IT 분야 사업을 전부 융합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론칭한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교육부터 취업, 창업까지 한 사이클로 만들어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요. IT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이 더 빨라진 경우도 있을까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초청연수가 2021년부터는 대부분 온라인 연수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화상 프로그램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연수 플랫폼을 오픈해 연수 기록을 통합 플랫폼에 데이터화하고, 누구나 접속해 연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보니 더 많은 참여가 가능해 연수 프로그램 수도 2019년 대비 4배 이상 늘렸습니다. 오프라인 연수가 재개되더라도 온라인 연수를 병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 한국 전문가들이 현지 조사를 갈 수 없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조사 인력을 고용하고, 한국에 있는 전문가와 협력하는 비대면 원격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한 일정의 지연 없이 현지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봉사단 사업 관련 민원과 문의를 처리하는 'AI 챗봇 서비스'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ODA 사업에서 디지털 요소와 함께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 그리고 전사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전환팀이 이뤄나갈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업 효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실제 수원국 정부와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사업으로 인해 수원국 주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등이 코이카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반 시스템 변화에 우선 집중할 예정입니다. 데이터만 수집하던 정보시스템이 구성원이 해야 할 작업을 미리 알려주고, 일정 관리 등도 해주는 사업 관리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면 데이터의 양과 질도 좋아져 외부로 나가는 서비스의 품질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효과도 더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준영 대리님에게 디지털 전환이란 무엇인가요? 정의를 내린다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에게 디지털 전환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교차 지점'같은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첫 직장에서는 개발자로 근무했습니다. 코이카로 이직한 뒤 개발자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했고, 국제 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제 과거의 경험이 현재 우리 기관의 목표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덕분에 더욱 긴장과 설렘, 기대를 갖고 디지털 전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

1)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사진 1 디지털 업무혁신 과제를 설명 중인 코이카 정준영 대리





통계로 보는 디지털 ODA 사업 현황

협력국 디지털 전환에 속도 높이는 코이카

디지털 ODA란,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을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디지털 환경 활성화 또는 디지털 인프라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발협력사업을 말한다.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ICT를 포함한 과학기술혁신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1]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채택했다. 코이카 또한 디지털 ODA의 비중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협력국의 디지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의 비중을 늘려 협력국의 디지털 전환[2]을 촉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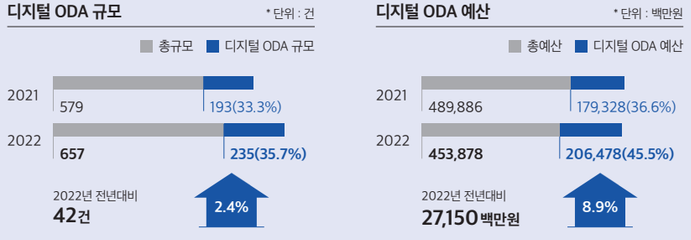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전환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ODA'

디지털 기술은 SDGs 달성을 위한 중요한 조력자이며, 디지털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원천 기술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포용적 접근 없이는 빈부, 성별, 지역사회의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도 있다. 코이카는 SDGs 달성을 촉진시키고,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한 협력국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디지털 OD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코이카는 디지털 ODA 진행에 있어 기준이 되는 여섯 가지 추진 원칙(활용성, 포용성, 개방성, 확장성, 데이터 기반, 정보 보안성)을 세웠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디지털 ODA의 주요 방향성을 '디지털 주류화'와 '디지털 핵심사업' 등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주류화는 모든 분야·유형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사업의 접근성·효율성·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디지털 핵심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협력국의 디지털 전환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코이카는 디지털 ODA의 사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코이카 디지털 마커'를 도입했다. 이전부터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ICT 마커(1991-2016)와 과학기술혁신 중심의 STI(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마커(2016~현재)로 디지털 이슈를 관리해 왔으나, 좀 더 최적화된 디지털 ODA 전용 마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코이카는 디지털 주류화와 디지털 핵심사업을 코이카 디지털 마커1·2로 구분하여 통계 파악은 물론 향후 사업 전략 수립 등에 전방위적으로 활용하며 디지털 ODA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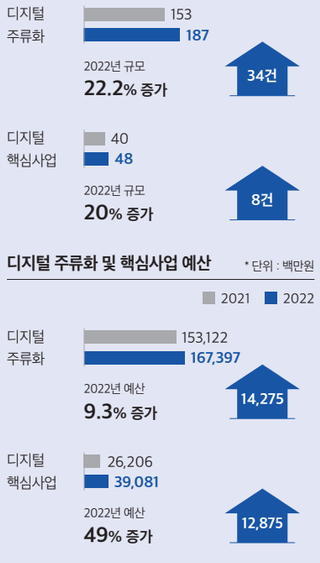
KOICA 디지털 ODA 현황
(2021~2022, 국별협력사업 및 글로벌연수사업 중)



※ 국별협력사업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복지향상 등 특정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물적협력수단과 인적협력수단을 패키지화 하여 다년간(약 2~5년간) 지원하는 사업

※ 글로벌연수사업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도국 공무원, 기술자, 정책결정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적자원개발(HRD) 사업

디지털 주류화와 디지털 핵심사업 현황
(2021~2022, 국별협력사업 및 글로벌연수사업 중)



2022년, 코이카 디지털 ODA 비중 확대

올해 코이카의 디지털 ODA 사업 비중과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디지털 기술이 일부 활용되는 디지털 주류화 사업과 협력국의 디지털 전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핵심사업의 규모와 예산이 모두 늘어난 것이다.

디지털ODA는 코이카의 국별협력사업과 글로벌연수사업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협력국의 경제 활성화와 인재양성이 디지털 ODA 사업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이다. 올해 국별·글로벌국별협력사업과 글로벌연수사업의 총 예산 4,538억 원 중 45.5%인 2,064억 원이 디지털 ODA에 배정됐다. 총 사업 건수 657건 중 디지털 ODA는 235건으로, 사업의 약 36%를 차지했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증가세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도 총 예산(4,899억 원)에서 디지털 ODA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6%(1,793억 원), 총 사업 건수(579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193건)였다. 사업 건수로만 보면 디지털 사업 증가 건수(42건)가 전체 증가량 78건 중 약 54%를 차지해 전체 사업에서 디지털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코이카는 특별히 디지털 ODA 중 디지털 핵심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핵심사업은 ICT 분야 장비와 기술 지원을 넘어 협력국의 자생적인 디지털 전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2021년 5.3%였던 디지털 핵심사업의 예산 규모는 올해 8.6%로 3.3%가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이 분야의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디지털 핵심사업, 디지털 ODA 이끌며 성장 중

2022년 현재, 코이카는 디지털 핵심사업을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정부,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안전 등 4대 분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디지털 산업을 육성해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디지털 경제 분야로, 코이카는 총 15건의 사업에 핵심사업 예산의 40.8%(159억 원)를 배정했다. 또한 코이카는 개방적·참여적·사용자 맞춤형 정부 정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정부 사업(19건)에 핵심사업 예산의 27.6%(107억 원)를 투입해 협력국이 디지털 정부로 발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개인정보, 재산, 안전 등 디지털 사회에서의 각종 보안 위험을 대비하는 디지털 안전 사업은 10건이 추진되며, 핵심사업 예산의 26.9%(10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디지털 기술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접근성 사업은 4건에 1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의 디지털 전환 요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디지털 전환의 속도에 선진국도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지금이다. 협력국들이 이 흐름에 발맞춰 스스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코이카의 디지털 ODA는 계속해서 발전적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 중이다. 지금까지 협력국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면, 앞으로는 사업을 확산하고 고도화하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다. 디지털 ODA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할 코이카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K

1) 지속가능개발목표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

2)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의 활용으로 여러 분야를 연결하며 생기는 변화와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의미. (OECD, Going Digital: Shaping Policies, Improving Lives)

디지털 주류화와 디지털 핵심사업 현황
(2021~2022, 국별협력사업 및 글로벌연수사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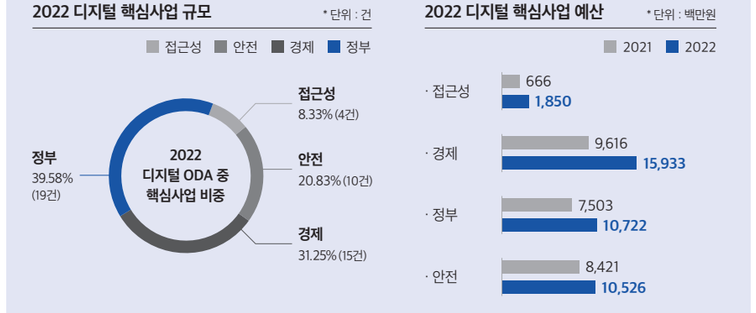



사진 1

쌍방향 온라인 연수, 한국형 학생 주도 수업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교사 배움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아제르바이잔 미래 교실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수년간 미래 교육으로 논의됐지만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던 디지털 수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교육 방식의 새로운 표준으로 떠올랐다. 코이카는 IT 강국인 한국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에 디지털 원격 교육에 대한 지원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 교사 블렌디드 러닝 역량 강화를 위한 쌍방향 온라인 연수'는 학생의 참여도를 높인 양방향 교육 방식을 전수해 주입식 위주였던 아제르바이잔의 기존 교육 체계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보여줬다.

쌍방향 온라인 연수, 참가자의 호평으로 2차 교육 연수 경쟁률 3:1 기록

아제르바이잔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기반 수업을 도입했지만, 인프라와 수업 역량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코이카의 '아제르바이잔 교사 블렌디드 러닝[1] 역량 강화를 위한 쌍방향 온라인 연수(이하 쌍방향 온라인 연수)'는 코로나19 대응 수업 역량 강화, 마스터 교사 양성을 목표로 2021년 3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일반교사들에게 수업 기법을 전수할 아제르바이잔 현지 마스터 교사 후보 35명과 일반 교사 348명이 연수에 참여했다.

사업 기획 당시, 아제르바이잔 교육부와 현지 교사들은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었다. 기존의 다른 연수에서 현장 적용의 실용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탓이었다. 그러나 쌍방향 온라인 연수 첫 수업 후, 참가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학습자가 수업의 중심이 되고, 학습자 스스로 참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수와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연수에 참여한 간자 22번 학교의 생물학 교사 Aynura 씨는 "이번 연수가 인생에 있어 중요한 기회였다"라며 "연수 기간에 배웠던 교수법들을 꼭 수업에 적용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1차 연수 진행 중 현지 교사들의 호평이 이어지며 2차 연수 신청자 수가 폭주했다. 2차 연수생 348명 선발에 총 1,076명의 신청자가 몰려 3: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연수생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4.79점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아제르바이잔 교육역량국에서는 추가 사업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아제르 교육정보화국 Vusal 국장은 "처음에는 교사 연수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었으나 연수 내용이 실제 수업에 적용되는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교육 성공을 아제르바이잔으로! 학생 중심의 교수법 전수

쌍방향 온라인 연수의 핵심은 학생 중심의 교수법을 성공적으로 전수해 교실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 교수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교사 1만 7,500여 명이 참여해 개발(2021년 1월 기준)한 것으로, 이미 한국에서 효과를 검증한 터였다. 아제르바이잔 현지 교사들은 한국의 강사들과 온라인에서 만나 학생 중심의 참여형 수업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5~6명씩 모둠을 만들고, 온라인 수업으로는 가르치기 어렵다고 여겼던 수학 문제를 학습자들이 협력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변화의 가능성을 실감했다.

교사들은 쌍방향 온라인 연수에서 배운 교수법과 활동을 수업에 바로 적용했다. 모둠으로 모여 앉은 아이들은 함께 토론하고, 다른 모둠과 활발히 교류했다. 변화된 수업 모습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하는 실시간 모니터링도 함께 이뤄져 연수의 효과를 한층 끌어올렸다.

쌍방향 온라인 연수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 주도의 학습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전의 아제르바이잔의 수업 방식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하는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쌍방향 교수법을 적용한 후에 학생들은 인터넷, 책 등을 활용해 스스로 학습하고, 그 내용을 토론하고 정리하는 그룹 활동 위주의 수업에 적극 참여했다. 조용히 앉아 한 방향을 바라보며 수업했던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교실의 풍경이었다.

현지 마스터 교사가 일반 교사들을 양성하는 교육 혁신 생태계 구축

쌍방향 온라인 연수의 또 다른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아제르바이잔 현지에서 지속가능한 교육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1차 교육으로 육성된 마스터 교사가 2차 교육에선 한국 강사진들의 모니터링 아래, 일반 교사들에게 직접 교수법을 전수했다. 한국에 있는 강사진에게 원격으로 연수받은 교사들이 배운 내용을 현지 동료 교사들에게 확산하는 자생적인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미 연수 내용을 수업에 적용하며 효과를 눈으로 확인한 마스터 교사들의 의지는 엄청났다. 연수 기간 동안 동료들의 피드백을 통해 수업 내용을 자발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열정과 기대감은 교사실천학습공동체(CoP)[2] 구축으로 이어졌다. 연수 내용을 수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공유하고, 참관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CoP에 새로운 교사들을 초대해 쌍방향 온라인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전달하는 노력도 이어졌다. 코이카는 CoP를 통해 교수법이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쌍방향 온라인 연수, 교육 디지털화가 미래 교육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보여줘

연수의 효과를 체감한 교육청과 현지 교사들은 쌍방향 온라인 연수를 아제르바이잔 전체로 확대하길 원하고 있다. 연수에 참여했던 간자 13번 학교 귤나르 휘세이노바 교장은 "한국 교육을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어서 즐거웠다"라며 "이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아제르바이잔 교사들을 위해 이 연수가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코이카는 현재 양성된 마스터 교사 35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를 시행한 (사)미래교실네트워크(FCN)와 아제르바이잔 바쿠 교육청은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교사 공동체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마련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양국 교사 교류를 활발히 하고, 교육 혁신 기법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코이카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 교육 기자재도 지원한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시에는 기자재가 보강된 데이터센터와 멀티미디어 스튜디오도 곧 문을 열 예정이다.

OECD는 코이카의 쌍방향 온라인 연수를 우수사례로 선정해 OECD 교육역량국에서 발행하는 보고서[3]에 소개했다. 보고서에서는 코이카의 쌍방향 온라인 연수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마스터 교사들이 자국의 또 다른 교사들에게 해당 교수법을 전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방식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OECD의 교육 비전인 학생 중심 교육을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교육 디지털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언급했다.

쌍방향 온라인 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위기가 오히려 교육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코이카는 비슷한 교육 문제를 안고 있는 유라시아 국가 지역에도 쌍방향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협력국의 교육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글로벌 교육 혁신에 앞장설 계획이다. K


사진 2


사진 3

1)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결합해 이루어지는 혼합형 학습으로, 대개 대면 수업(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결합한 수업 형태를 말함.

2) Community of Practice, 현지 교사들이 스스로 역량을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한 교사 실천 학습 공동체

3) 「Adapting Curriculum to Bridge Equity Gaps : TOWARDS AN INCLUSIVE CURRICULUM」, OECD, 2021년 12월

사진 1 한국교육에 고마움을 전하는 아제르바이잔 교사와 학생들

사진 2 한국에서 원격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3 쌍방향 온라인 연수 이후 아제르바이잔 교실 풍경

사진 1



이집트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사업

현장형 기술인재 양성으로 청년 실업률 낮추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피라미드의 나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베니수에프 지역에는 '한국-이집트 기술대학[1]'이 있다. 이집트에는 기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집트 기술대학은 이집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코이카가 2016년부터 설립을 추진해 2019년 9월에 신입생 136명으로 개교한 4년제 기술대학이다.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실무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나아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설립 과정과 성과를 들여다봤다.

고학력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나서다

이집트의 고등교육[2]기관 취학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집트 전체 인구의 약 39%가 고등교육을 받았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아 전체 실업자 4명 중 1명이 청년층이다. 이는 이집트 고등교육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였다.

그 원인으로는 이론 위주의 교육 등 기술 인력 양성에 맞지 않는 교육체제가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집트에는 8개의 국립 기술대학이 있으나 시설이 낙후되고 실습 교육이 부족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를 양성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이 주로 기술대학에 입학한다는 이유에서 기술교육의 가치가 폄훼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집트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기술교육클러스터(ITEC)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술교육을 강조하는 정책 수립과 함께 다양한 기술교육체제 강화 방안을 강구했다. 청년고용 정책에도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포함하고,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기업 발전을 꾀하고자 했다. 코이카는 이집트의 정책 기조와 현지 산업체 기술 인력 수요에 맞춰 583만 달러를 투입해 4년제 기술대학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신 커리큘럼과 실습실 갖춘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본 사업의 핵심은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넘어 산업계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조사단을 파견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체와 로컬 기업체 인사 담당자 등을 만나 산업 현장의 기술 인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했다. 이에 맞춰 메카트로닉스(기계전자공학)학과와 ICT 학과를 한국-이집트 기술대학의 전공 분야로 선정했다. 또한 컴퓨터 실습실, 기초회로 실습실, 기계공작 및 생산기계실 등 학과별로 필요한 실습 공간을 마련하고, 해당 실습실에서 필요한 최신 기자재와 설비도 구비했다. 최신식 실습 공간과 기자재 및 설비는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교직원과 관리자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했다. 기술대학의 교수들은 지식 수준이 높은 교육자인 동시에 숙련된 기술자여야 하지만, 이집트 내 기술대학 교수 대부분은 관련 전문지식, 특히 실습 과정을 지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이카는 교수진의 자격, 급여, 경력 개발 등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12주간 교수진 연수 과정을 마련해 초청 연수를 진행했다. 전공 교육과정별 전공 실습 연수, 공학 인증을 위한 연수 등 다양한 현지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전공 2개 과의 교육과정 품질 인증도 추진했다. 이집트는 국제사회에서 인증받은 교육과정 평가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학을 졸업해도 해외나 외국 기업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코이카는 교육과정 품질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교 운영 기준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했다. 그 결과 공학 교육과정 인증 국제협의체인 워싱턴 어코드[3]에서 교육과정 품질 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졸업생들은 한국·미국·영국·호주 등 회원국들의 학력과 동등함을 인정받게 되었고, 2022년 5월 말에는 한국 공학기술교육인증까지 획득했다.

취업 연계로 취업문 활짝, 가고 싶은 대학 1위

코이카는 특히 사업의 가장 중요한 취지 중 하나인 졸업생들의 취업 지원에 많은 공을 들였다. 설립 초기부터 현지 삼성전자 생산법인에 기술대학을 졸업한 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채용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졸업생 취업 연계를 추진했다. 또한 전공 과정 외에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컴퓨터, 창업 등 취업 실무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졌다.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시, 지역 산업체 전문가를 참여시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숙련도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

그 결실로 2020년 12월, 한국-이집트 기술대학은 삼성전자 현지법인과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 현지법인은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학생 30명에게 8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후 인턴십을 인근 기업까지 확장해, 현재 22개 기업에서 200명이 넘는 기술대학 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있다.

2023년에 배출하는 한국-이집트 기술대학의 첫 졸업생 상당수는 기술 인턴을 경험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시작으로 투철한 직업의식과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연간 120명의 기술 인력이 한국-이집트 기술대학을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다양한 국가에서 기술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사업을 추진해 온 코이카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이집트 기술대학의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한국-이집트 기술대학은 이집트와 지역사회가 갈망하던 국제 수준의 공학 기술인재 양성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집트 정부는 최신 커리큘럼과 기자재, 실습 위주의 교육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이집트 기술대학이 이집트 기술교육 발전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은 이집트의 청년들에게 자아실현과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크다. 이는 SDGs 4번 목표 중 4.3.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와 4.4. 직업역량 개발 세부목표, SDGs 8번 목표 중 8.6. 청년 실업률 경감과도 부합한다.

코이카는 한국-이집트 기술대학의 설립이 이집트 경제발전과 한국 기업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평가에 따라 후속 사업을 발굴해 이집트의 지속 가능한 기술교육체계 확립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집트 기술대학의 새로운 표준으로 우뚝 선 한국-이집트 기술대학은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과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다. K

1) BeniSuef Technological University

2) 초등(초등학교)·중등교육(중고등학교) 이상의 높은 교육단계.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대학원 등이 있다.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출처 :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

3) 1989년 맺은 협약에 따라 가입국 간 4년제 공학교육과정 졸업생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는 공학교육인증 국제협의체다. 정회원 가입국은 미국·영국·호주·캐나다·일본·중국 등이며, 한국은 2007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사진 1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전경

사진 2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재학생이 장비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 2





한베 ICT 대학교 지원 사업

베트남 ICT 분야의 핵심 인재를 키우다

베트남은 임금 대비 우수한 인력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IT 아웃소싱 강국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가 붙고 있으나 관련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CT 인력 부족은 2020년 15만 명에 달했으며, ICT 사업 인력 수요는 매년 1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ICT 분야 인력난이 최단 10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이카가 설립 단계에서부터 지원 중인 '한베 ICT 대학교'는 베트남 내에 세 곳뿐인 ICT 특화 대학 중 하나다. 한베 ICT 대학교가 양성한 고급 ICT 인력은 다낭을 비롯한 중부 지역 ICT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 인재 양성하는 한베 친선 IT 대학 설립

'한베 친선 IT 대학 설립 사업'은 2003년 베트남 총리의 방한으로 시작됐다. 두 나라 정상이 한베 정상회담에서 베트남 내 IT 대학 설립에 합의함에 따라 코이카가 본 사업을 전담하게 되었다. 1차 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00만 달러를 투입해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IT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3년제 전문대학인 '한베 친선 IT 대학'[1]은 학년별 800명 정원, 전체 학생 2,400명 규모로 2007년 9월에 개교했다.

코이카는 IT 분야 특성화를 위해 한국 내 우수 IT 전문대학의 교육과정과 운영 방식을 모델로 삼았다. 컴퓨터보조공학, 컴퓨터정보공학, 사업행정, 마케팅정보 등 4개 과정을 개설했으며, 2009년부터는 정보기술, 컴퓨터보조예술 등 2년제 과정도 신설해 운영했다. 이를 위해 235개의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이 이뤄졌으며, 컴퓨터 1,400대도 지원했다.

교육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교직원과 관계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코이카는 교수, 관리자,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청 연수를 지속해서 진행했다. 또한 대학 설립 목적인 고급 IT 인력 양성과 노동시장을 연계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협력해 학생들이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마련했다. 이외에 정보시스템 인프라,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포털 시스템, 학사관리 및 행정 시스템, 강의실 및 사무실 구축 지원 등에 필요한 네트워크도 마련했다.

3년제 전문대에서 4년제 '한베 ICT 대학교'로 승격

3년제 전문대학으로 설립된 한베 친선 IT 대학교는 이후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의지를 코이카 측에 밝혀왔다. 당시 베트남 IT산업은 빠르게 성장해, 3년제 기술 인력보다 4년제 대졸 엔지니어 수요가 크게 늘고 있었다. 이에 코이카는 520만 달러를 투입해 '베트남 한베 친선 IT 대학 4년제 승격 지원사업'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했다. 3년제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과당 1명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교원 보유, 교재·교육과정 확대, 교육 기자재 확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커리큘럼을 보강하고 50개 과목의 교재 개발,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박사 과정 운영, 교육 기자재 확충 등 4년제 대학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차근차근 갖추어갔다.

먼저 2020년까지 총 16명의 교원이 숭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업 첫해부터 8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었다. 한베 친선 IT 대학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사업 시작 전인 2012년 0명에서 2020년 총 24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그 결과 4년제 승격 요구 사항이 충족됨은 물론, 교수진 역량도 강화됐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학과별 전문가, 산학협력 전문가, 기자재 전문가 등을 현지에 파견했다. 커리큘럼 보강과 교수법 전수, 대학운영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직원 초청 연수와 현지 연수도 이뤄졌다.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협력·취업지원센터 개설, 학술대회와 콘퍼런스 개최 등도 이어졌다. LG히다찌(주), 블루SNA 등 기업과의 산학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2017년, 베트남 정부는 '한베 ICT 대학교'[2] 통합 설립에 동의하고 교육부에 후속 절차 추진을 지시했다. 한베 친선 IT 대학은 2020년 초 인근 다낭대학교의 IT 관련 학과와 통합해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고, 명칭을 한베 ICT 대학교로 변경했다. 마침내 베트남 중부 지역 유일의 4년제 ICT 전문 대학교가 설립된 것이다. 한베 ICT 대학교는 승격 후 현재까지 4년제 과정 졸업생 106명을 배출했다.

4년제 전환 후 첫 졸업생이 된 컴퓨터공학과 호 티 탄 빈(Ho Thi Thanh Binh) 씨는 "한베 ICT 대학교는 우수한 교수진과 완벽한 교육시설을 갖춘 꿈의 학교"라며, "전문 지식 습득은 물론 실습·인턴십 등으로 실무 능력을 높일 수 있어 졸업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ICT 산업 이끄는 베트남 일류 대학을 향해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다낭을 중부 지역 스마트시티의 허브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중부 지역 유일의 4년제 ICT 전문 대학교인 한베 ICT 대학교가 다낭시를 스마트시티로 나아가게 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이카는 베트남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중부 지역 고급 ICT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3차 사업인 '베트남 한베 ICT 대학교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베 ICT 대학교 교육 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협의의사록도 곧 체결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770만 달러를 투입해 진행하는 3차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2026년까지 졸업생 취업률 100%, 베트남 대학교 순위 30위 달성이다. 이를 위해 교육 역량 강화, 산학협력 및 연구 역량 강화, 베트남 ICT 산업 고도화, 기숙사 및 캠퍼스 내 네트워크 환경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베 ICT 대학교의 쩐 더 손(Tran The Son) 부총장은 "한베 ICT 대학교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 왔다"라며 "1차 사업을 통해 전문 IT 대학이 설립됐고, 2차 사업을 통해 4년제 ICT 대학교로 승격에 성공해 중부 지역의 우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3차 사업을 통해 한베 ICT 대학교는 베트남 일류 대학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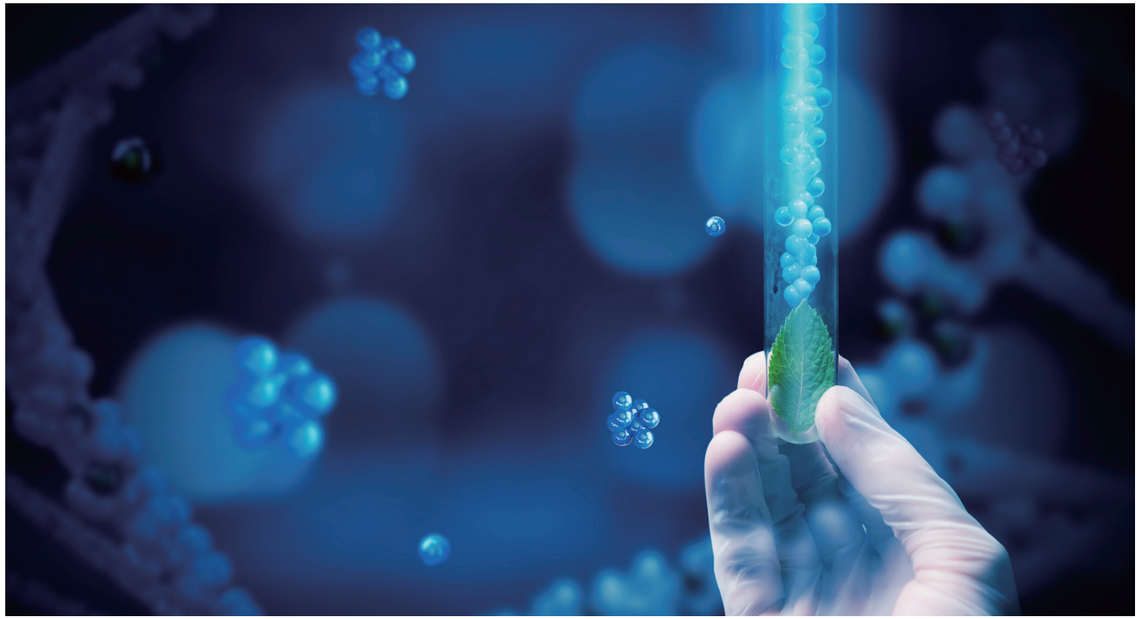
1) Establishment of the Korea-Vietnam Friendship Information Technology College

2) Vietnam-Korea Univers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사진 1 한베 친선 IT 대학의 4년제 승격을 위한 지원 현장



사진 1



에콰도르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 지원

한국 정보통신기술(ICT)로 지키는 에콰도르의 생물다양성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이 국토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남아메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에콰도르는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17개국[1] 중 하나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발상지이자 원시 생태계의 보고인 갈라파고스제도 역시 에콰도르의 영토다. 2022년 2월 22일, 코이카는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에콰도르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와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 사업'[2]의 협의의사록을 체결했다. 에콰도르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유전자원 연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2028년까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 지원

'에콰도르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 사업'은 코이카의 최근 중점 전략 방향인 기후변화 대응(그린 ODA)과 디지털 분야를 접목한 사업이다.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이란, 흩어져 있는 생물자원의 유전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데이터화하고, 이를 지속해서 유지·관리·활용하는 통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 관련 분야 연구 등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자연유산의 보전을 국가 발전의 중요한 축이자 핵심 과제로 여겨온 에콰도르 정부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1992년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3]에 전 세계 167개국과 함께 서명했다. 2008년 9월에는 생태 파괴 예방 의무를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16년에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를 발족했다.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는 에콰도르의 유전자원을 발굴하고, 종 다양성 보전을 계획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에콰도르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의 운영은 곧 난관에 부딪혔다. 국제 유가 하락, 수출 감소, 재정적자 누적 등으로 성장이 둔화하던 에콰도르 경제가 2016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투자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7.75%로 곤두박질쳤다. 더구나 유전자원 데이터를 연구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코이카는 2028년까지 총 900만 달러를 투입해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연구 활성화 및 관리 시스템의 선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DNA 정보 통합 관리와 함께 보호구역의 모든 생물 DNA 수집 기대돼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의 설립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유전자원 관리와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했다. 이에 코이카는 생물다양성 정책과 종 보전 전략의 틀 내에서 국가 유전자원 관리 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기존의 생물자원 연구 기관인 바이오센터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 유전자 센터 운영, 바이오센터 유전자 수집 네트워크 관리 모델 개발 등에 관해서도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시스템은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 위치한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 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스템을 통해 DNA 정보를 바코드 형태로 축적해 통합 관리하고, 샘플에 대한 유전학적 변이 추이 확인과 분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보호구역의 모든 생물 DNA를 수집하고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에콰도르 내 분산된 7개 바이오센터의 시스템을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생물자원 포털 개편도 지원한다. 포털 시스템에 생물다양성 정보 수집과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교육 콘텐츠 및 연구 자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 연구자와 IT 종사자들이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코이카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파견해 DNA 바코딩·생명정보 분야 기술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자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의 생물다양성 전략도 공유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프라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센터 내 항온·항습기를 설치해 기상 변수로 인한 서버의 다운 등 예기치 못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보시스템 통합 관리에 필요한 서버와 IT 장비, 소프트웨어 등 기자재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e-러닝 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 유전자 자원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 확립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넘어 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

본 사업을 통해 코이카는 에콰도르의 유전자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8년 사업 종료까지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 포털에 200종의 생물자원 데이터, 유전자원 데이터은행에 7,000개의 샘플을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에도 에콰도르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의 유전자원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1

더불어 에콰도르와 한국 양측은 본 사업을 통해 에콰도르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길 바라고 있다. 생물다양성이 하나의 자원으로 인정받는 요즘,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은 에콰도르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넘어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이카는 본 사업을 통해 한국-에콰도르 생물다양성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학계와 산업계가 에콰도르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SDGs 14 목표인 대양, 바다, 해양자원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용에도 부합한다.

본 사업은 생물다양성 분야와 ICT 기반 적정기술을 접목한 개발협력 사업이라는 점, 생물다양성의 보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협력국의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생물다양성 분야의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계속 커지고 있다. ICT 역량이 풍부한 한국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앞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과학기술 분야 개발협력을 이끌어갈 코이카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K

1) 세계 200개국 중 17개 국가가 지구 생물다양성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를 '거대다양성 국가(Mega diversity countries)'라고 한다.

2)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 (2022-2028/900만 달러)

3)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균형 유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약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사진 1 에콰도르 국립생물다양성 연구소 도서관의 연구샘플

사진 2 에콰도르 데이터 은행에서 샘플을 확인 중인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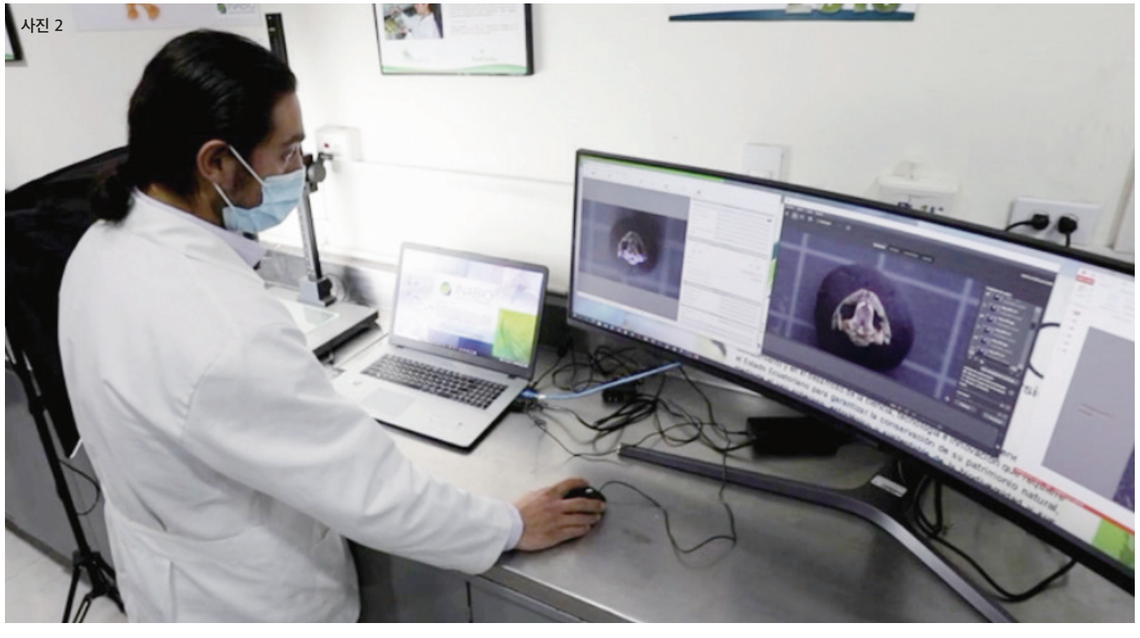


사진 2



독특한 개발 경험 가진 한국, 선진국-개도국 잇는 중추 역할 다할 것

새로운 포용적 파트너십으로 개발협력 지평 확대

"세계경제를 이끄는 나라이자, 성공적인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은 선진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 개도국을 이으며 견해를 좁힐 수 있는 국가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9월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외교부와 코이카 주최로 열린 '제15회 서울ODA국제회의'에서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한 말이다. 팬데믹 이후 일방적 공여국과 수혜국으로 나뉘는 이분법적인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흥 공여국의 남남협력, 삼각협력이 대두하며 ODA의 지형이 변화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단적인 표현이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지역 분쟁 확산 등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변화하는 ODA 지형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15회 서울ODA국제회의가 바로 그 자리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지평 확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정부·민간·학계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다양한 글로벌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서울ODA국제회의는 2007년 처음 시작해 국제기구 수장들과 각국 ODA 책임자들이 ODA 파트너십을 다지는 주요 국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은 신흥 공여국과 협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일방적인 수혜자와 공여자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점점 복잡해지는 글로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ODA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와 규범이 보다 포용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원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경험 등을 기반으로 새 국가들과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협력 전문가들, 글로벌 위기 속 한국 '연결고리' 역할 기대

감염병·기후변화·전쟁 등 초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출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협력을 통한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달성은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

첫 번째 세션은 이러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좌장을 맡은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공여국으로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중요한 국가로서 입지가 매우 강화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기존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 개도국을 양자간, 다자 간 체제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우리 정부의 목표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은 자유·평화·민주주의·법치주의 등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포용적인 국제질서를 정립해 나가는 등 글로벌 위기 속에서 선제적 역할을 맡아 역량을 발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앞으로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의 ODA 정책 4대 기조인 ▲ODA 규모 확대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 ▲자유·인권 등 글로벌 가치 수호 ▲국제협력의 효과·효율성 증진 등을 소개했다.

하오량 쉬(Haoliang Xu) 유엔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보는 "빈곤, 기후위기, 분쟁 등 글로벌 도전 과제가 더 복잡해지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며 "삼각협력[1]은 관련 주체들을 연결함으로써 더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인 한국은 삼각협력에서 아주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더 많은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통 공여국인 미국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히스 코스그로브(Heath Cosgrove)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한일 담당 대표 및 미국 개발 고문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한다면 의미 있는 해결책을 분명 찾을 것이며,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글로벌 위기 대응 위한 협력 절실, 기존 ODA 접근 방식 바꿔야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흥 공여국의 부상과 국제개발협력의 변화'라는 주제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세션을 이끌었다.

스테판 클링어빌(Stephan Klingebiel) 독일 개발 및 지속가능성 연구소(IDOS) 초국경 및 국제협력프로그램 총괄은 "세계는 지금 어느 때보다 협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ODA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하며, 이번 회의가 그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오쥔 그레이스 왕(Xiaojun Grace Wang) 유엔남남협력사무소(UNOSSC) 부소장은 "남남협력[2], 삼각협력이 기존의 ODA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며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는 역동적인 남남협력, 삼각협력이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며, 포용적 파트너십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어 라그하이두르 엘린 아르나도티르(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장은 "전 세계 교역량에서 신흥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2%에서 46%로 높아지는 등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벡스 이니셔티브'를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하며 "국제협력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데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신흥 공여국, 다양한 파트너 포용하는 국제협력 시스템 절실 '한목소리'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신흥 공여국을 대표해 참석한 태국·인도네시아·튀르키예·카자흐스탄의 개발협력 대표들이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지역 내에서 영향력이 큰 신흥 공여국의 경험과 전문성을 배움으로써 글로벌 위기에 대응할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좌장은 강볼드 바산자브(Ganbold Baasanjav)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 사무소장이 맡았다.

첫 연사로 나선 와따나윗 가자세니(Watanawit Gajaseni) 태국 국제협력청(TICA) ▸▸

1) 두 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한 개 이상의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형태

2) 두 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지식, 기술, 재원 등을 교환하거나 지역협력을 추진해 공동의 역량 개발을 추구하는 협력 형태



사진 1 (왼쪽부터) 곽재성 경희대학교 교수,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히스 코스그로브 USAID 한일담당 대표 및 미 개발고문



▸부청장은 태국의 개발협력 기조와 더불어 개발협력을 촉매제로 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선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거시 수준에서 보면 국제사회는 개발협력에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한 규칙과 규제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는 세계 모든 국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토르마르블랑 룸반토빙(Tormarbulang Lumbantobing) 인도네시아 국제개발청(Indonesian AID) 청장은 "인도네시아는 도움을 받는 동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신흥 공여국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정보의 불충분, 규제 등을 신흥 공여국가의 도전 과제로 꼽으며,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지식과 정보를 나눴으면 한다"고 전하며 "인도네시아 국제개발청이 전 세계적인 개발협력 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라만 누얼둔(Rahman Nurdun) 튀르키예 개발협력조정청(TIKA) 부청장은 "튀르키예는 지난 30년 동안 국제협력 경험을 통해 협력 형태에 어떤 제한도 둘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전수하던 기존 국제협력 모델의 시대는 지났으며, 다양한 방향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튀르키예도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스탄 옐레우케노프(Dastan Yeleukenov) 카자흐스탄 국제개발청(KAZAID) 이사장은 "기존의 국제협력 시스템은 공여국 입장에서 구축한 것인 만큼,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혜국에서 필요한 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며, 이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를 위해서는 모두 함께 배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의 SDGs 달성 위한 통합과 파트너십 확대 필요

마지막 라운드테이블 세션은 '통합과 파트너십 확대'라는 주제로 1~3세션의 발표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장이었다. 레이첼 글로벌개발연구소(CGD) 선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서 새로운 파트너십의 개발과 확장, SDGs 달성 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 ▸▸









끌었다. 스테판 클링어빌 IDOS 초국경 및 국제협력프로그램 총괄은 남남협력의 원칙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주 기본적인 원칙, 기준부터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강볼드 바산자브 유엔 ESCAP 동북아 사무소장은 "자본·기술·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 한국, 튀르키예, 태국 등 중견 국가들이 나서서 수원국과 공여국 사이에서 중요한 교량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홍석화 코이카 이사는 폐회사를 통해 "오늘 회의는 인류에게 닥친 현재의 위협이 기존 공여국들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지구적이고 복합적인 도전 과제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했다"라며 "앞으로도 코이카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과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해서 새롭고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15회 서울ODA국제회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 정부의 비전과 ODA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포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ODA 파트너십을 위한 중요 국제회의 플랫폼인 '서울ODA국제회의'에서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K







사진 2 (왼쪽부터)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스테판 클링어빌 IDOS 초국경 및 국제협력프로그램 총괄, 라그하이두르 엘린 아르나도티르 OECD 개발센터 센터장

사진 3 강볼드 바산자브 유엔 ESCAP 동북아 사무소장

사진 4 토르마르블랑 룸반토빙 Indonesian AID 청장

사진 5 와따나윗 가자세니 TICA 부청장

사진 6 다스탄 옐레우케노프 KAZAID 이사장

사진 7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사진 8 스테판 클링어빌 IDOS 초국경 및 국제협력프로그램 총괄

사진 9 라그하이두르 엘린 아르나도티르 OECD 개발센터 센터장

사진 10 제15회 서울ODA국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개회를 축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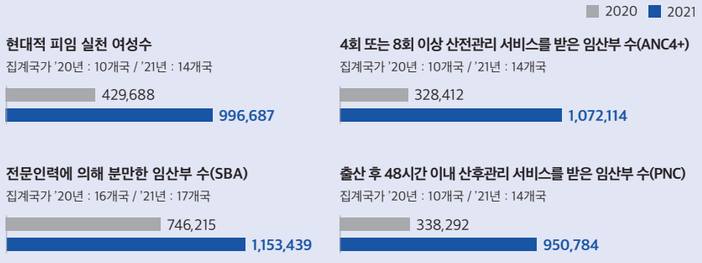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코이카 2021 보건 분야 성과

건강 불평등 격차 좁히는 코이카 보건 ODA

2021 성생식모자청소년보건 프로그램 주요 성과

프로그램 주요성과

* 단위 : 명



21년 KOICA 성생식모자청소년 보건 프로그램 수혜자

18개국 주민 730만 명

청소년 포함, 여성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사망 예방을 위한 **'가족계획 실천', '산전·산후 관리', '전문가에 의한 분만' 수혜자**

422만 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난 2022년 4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ODA 지원 실적은 전년 대비 6.1억 달러(26.9%) 증가한 28.6억 달러다. 이는 한국이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한국 정부는 2021년 초 제3차 국제개발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면서 ODA 규모를 2030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까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보건 분야 ODA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국제 협력에 앞장서 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발협력기관으로서 코이카의 2021년 보건 ODA 성과를 통계로 짚어봤다.

성생식모자청소년보건 접근성 1.5배 상승

개도국을 돕는 국제사회의 손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에 집중되면서, 성생식모자청소년보건[1] 관련 사업은 주목받지 못했다. 실제로 2020년 성생식모자청소년보건에 대한 지원이 2019년 대비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이 감소할수록 임신 중인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 및 복지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하며, 모성 및 영아 사망률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이카는 2021년에 한해 동안 2432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며 성생식모자청소년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일례로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분만 서비스와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했으며, 에티오피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산했다. 그 결과, 성생식모자청소년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전년 대비 1.5배 높아지는 성과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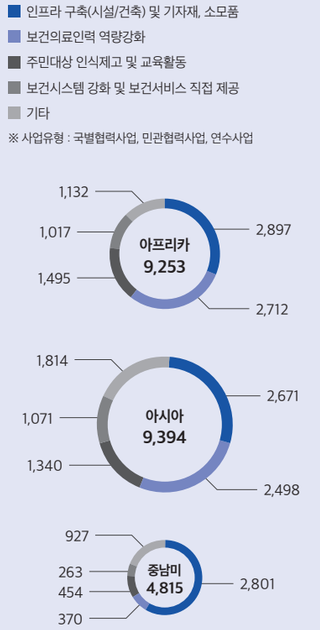
코이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약 1억 5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총 19개국, 45개 사업을 통해 성생식모자청소년보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대상국은 아프리카 7개국(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케냐,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아시아 7개국(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솔로몬제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중남미 5개국(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페루)이다. 주요 내용은 전문 인력에 의한 안전한 분만, 보건소 및 병원 구축, 기자재 및 소모품 지원, 주민 대상 인식 제고 및 교육, 모성 및 신생아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 등이다. 그밖에 피임 도구 및 피임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 청소년 성인지 캠페인 및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모성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1년에 코이카 성생식

2021 성생식모자청소년보건 프로그램 주요 성과

프로그램 지역별 지원 실적

* 단위 : 만 달러



아프리카 |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케냐,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아시아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솔로몬군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남미 |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페루

프로그램 활동별 지원 실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능이 강화되거나 신축된 보건의료시설 수	**579 개**
청소년 성인지 캠페인/교육 참여자 수	**2,534,927 명**
캠페인 교육/참여 지역주민 수	**531,005 명**
교육을 이수한 마을보건요원 수	**13,334 명**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보건의료인 수	**4,231 명**

모자청소년보건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약 730만 명이다. 그중에서 422만 명 이상이 모성 사망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계획 실천을 위한 서비스,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분만 서비스 등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적절한 시기에 산전 관리(4회 이상)를 받은 임산부는 2021년에만 107만 2114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6%나 증가했다. 또, 출산 후 48시간 이내 산후 관리를 받은 임산부 수는 2021년 95만 784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1%나 증가했으며 현대적 피임 실천 여성 수 또한 2020년 대비 132%나 증가했다.

한편, 2021년에 기능이 강화되거나 신축된 보건의료시설 수는 총 579개였다. 교육을 이수한 마을보건요원은 약 1만3334명이었으며, 청소년 성인지 캠페인·교육 참여자 수는 253만4927명이었다.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보건의료인 수는 4231명, 캠페인·교육 참여 지역 주민 수는 53만 1005명이었다.

코로나19 대응 속에서도 빛난 다른 감염병 퇴치를 위한 코이카의 노력

결핵, 말라리아, HIV(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 등은 이전부터 개도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치명적인 질병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이런 질병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면서 고통 받는 사람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도국의 보건 분야 예산과 인력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되면서 생긴 여파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은 다른 때보다 높아졌지만, 코로나19 외 다른 감염병 퇴치 성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2021 감염병 프로그램 주요 성과

주요 감염병 및 소외열대질환 주요 성과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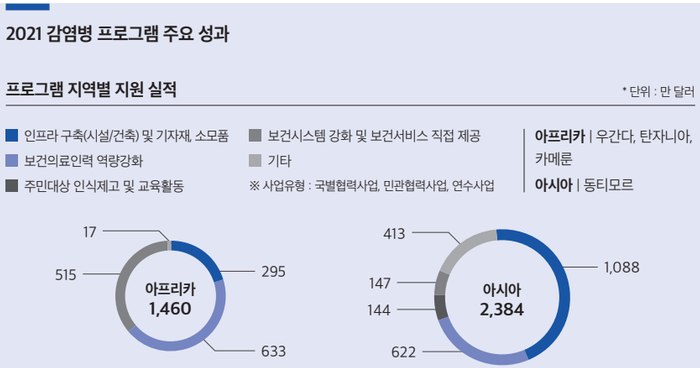
* 감염병 : 결핵, 말라리아, HIV/AIDs
* 소외열대질환 : 트라코마, 림프사상충, 주혈흡충증, 토양 매개성 질환, 회선사상충

21년 KOICA 주요 감염병 및 소외열대질환 프로그램 수혜자	**4개국 주민 149만 명**
주요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진단·치료를 받은 협력국 지역주민	**422만 명**

2021 감염병 프로그램 주요 성과

프로그램 지역별 지원 실적

* 단위 : 만 달러



프로그램 활동별 지원 실적

관련교육을 받은 보건의료인 수	**2,143 개**
예방/대응 교육을 받은 주민 수	**26,369 명**
검사 및 진단 관련 훈련된 실험실 연구인력 수	**82 명**
개선된 지원시설 · 병원급(6기개) · 보건소 및 보건지소급(52개) · 보건센터(2개)	**115 개**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주요 감염병 및 소외열대질환[2] 프로그램(2020-2024)'을 운영해 왔다. 사업은 총 3000만 달러 규모이며, 2021년에만 509만 달러를 투입했다. 코이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원 분산을 최소화하고, 주요 감염병 및 소외열대질환의 진단과 치료와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2021년 주요 감염병 및 소외열대질환 예방·진단·치료 서비스의 감소율을 2020년 대비 3.7% 이내로 최소화할 수 있었다.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으로 인해 코로나 외 감염병에 대한 대응 활동이 축소되는 상황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성과다.

본 프로그램은 아시아 동티모르와 아프리카 3개 국가(우간다, 카메룬, 탄자니아) 등 4개국에서 총 11개 사업으로 진행했다. 사업의 목표는 개도국이 사업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 위기관리 능력 및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주요 활동으로 보건소·병원·실험실 등 개설 및 개보수, 기자재 및 의약품 제공,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요원 대상 역량 강화, 지역 주민 대상 감염병 예방·대응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2021년, 본 프로그램의 직·간접 수혜자는 약 149만 명이었다. 그중에서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 146만 명 이상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병원급 61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급 52개, 보건센터 2개 등 총 115개의 보건의료시설의 질병 예방·진단·치료 역량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 및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관련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보건의료인 수는 2143명, 검사 및 진단 관련 훈련을 받은 실험실 연구인력 수는 82명, 예방·대응 교육을 받은 주민 수는 2만 6369명이었다.

응급, 감염, 분만 등 환자의 생명과 삶의 질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필수 의료 서비스는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개도국에서는 감염병을 관리하던 보건소가 문을 닫거나, 여성의 분만을 지원하던 의료진이 다른 곳으로 재배치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19를 해결함으로써 더욱 극심해지는 불평등을 극복해나가야 하는 이유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심화된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인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K

1) 안전한 임신과 분만, 신생아와 아동의 질병 치료와 발달, 청소년의 생식보건 인식 개선을 포괄하는 사업 (RMNCAH_Reproductive, Maternal, Newborn, Child and Adolescent Health)

2)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통칭한 열대지방에서 주로 발생하는 20개 질병을 말한다. 이 질병들은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 의료 서비스나 깨끗한 식수와 위생 시설이 부족한 빈곤 지역에서 나타난다.

사진 1



볼리비아 엘알또 한국병원 지원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24년간의 노력

남아메리카 내륙에 위치한 볼리비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지만, 오랜 기간 반복된 전쟁과 내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보건 인프라도 열악해 인구 1만 명당 내과 의사 수는 4.7명, 인구 10만 명 당 병원 침상 수는 11개로, 이는 개발도상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2014년, WHO 자료). 낙후된 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원된 의료기기 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다.

라파스 주(州) 엘알또(El Alto)는 볼리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기후가 척박하고 산소가 부족해 볼리비아 내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24년 전 코이카는 이곳에 '엘알또 한국병원'(Hospital Municipal Boliviano Coreano)을 최초로 개원했다. 1998년 개원한 엘알또 한국병원은 현지 의료 수요에 맞춰 점차 확장하며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코이카가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의료 체계

지역 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수준을 높이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필수 요건이다. 지역 내 지속 가능한 보건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한 지역의 크고 작은 보건의료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질병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예방 접종이나 가벼운 치료는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중증 질환의 경우 2차·3차 상급병원으로 연결해 치료를 받게 하는 체계적인 환자 이관(전원, Referral) 구조가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코이카는 보건의료 체계 지원 사업 시, 1차·2차·3차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의 원활한 진료 연계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엘알또 한국병원 사업은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탄탄하게 다져 지역에 꼭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성공적인 개발 협력 사례로 꼽힌다.

작은 보건소가 모자 병동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 되기까지

볼리비아의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2·3차로 구분하며, 그중 1차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네트워크[1] 내 첫 관문 역할을 담당한다. 엘알또 한국병원은 1998년 개원 당시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보건소로 문을 열었다. 18병상, 2층 규모의 소규모 병원이었지만 기초 보건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이었다. 엘알또 한국병원은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일반외과 4개 진료과를 갖추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시작했다. 간단한 진료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던 현지 주민들은 엘알또 한국병원의 개원을 크게 반겼다.

2008년에는 코이카의 2차 지원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외래진료와 수술이 가능한 4층 규모의 모자 병동이 개설됐다. 아동이나 임산부를 위한 전문병원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모자 보건을 담당할 수 있는 병원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모자 병동 개설 이후, 엘알또 한국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14개 과와 95개 병상을 갖추게 됐다. 이로써 보건네트워크 내 유일한 2차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며 현대적 의료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게 된 것이다. 2014년에는 순천향대-코이카의 사후관리 협력사업으로 의료 기자재 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의료인력의 역량 강화 사업도 진행했다.

병원을 넘어 지역 보건의료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다

엘알또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100만 명에 육박했고, 엘알또 한국병원이 속한 지역 보건의료 네트워크가 담당해야 할 인구는 약 25만 명에 이르렀다. 엘알또 한국병원은 빠르게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도 있지만, 보건의료 네트워크 간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근본적 원인도 있었다. 예컨대 볼리비아의 공공의료보험 원칙 상 1, 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없이 환자는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데, 환자가 자의적으로 상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자연분만 환자는 1차 의료기관인 통합보건소에서 수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량 부족으로 엘알또 한국병원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엘알또 한국병원의 수용 규모를 늘리는 한편, 1차·2차·3차 의료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환자 이관체계가 필요했다. 이에 코이카는 840만 불의 예산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3차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번 3차 지원은 먼저 1차 의료기관인 보건소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으로 시작했다. 역량 강화 교육은 2013년부터 엘알또 한국병원과 협약을 맺고 보건 역량 강화 사업과 기자재 지원을 담당해 온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HO, 이하 PAHO)가 맡았다. PAHO는 약 209명의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이용과 관리, 약품 및 기자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주민 대상의 모성 및 아동 건강 교육, 만성질환 교육, 생활 습관 관련 인식 개선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환자 이관 체계가 조금씩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코이카는 엘알또 한국병원에 4층 규모의 3차 병동도 신축했다. 신축된 병동에는 병동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모자 병동과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되고, 병상 56개가 증설되어 입원실과 응급실 공간도 확장되었다. 아울러, 외래진료과, 영상의 학과, 약학과, 영양학과 등이 추가 개설되고 인공 호흡기와 X-ray 장비 등 270개 품목의 의료 기자 재도 지원되었다.

3차 병동이 2022년 5월부터 정상 가동하면서 엘알또 한국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은 크게 늘어났다. 3차 병동 개원식에서 볼리비아 아우사 보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원으로 볼리비아는 최첨단 병원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 병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코이카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주볼리비아 김기홍 한국대사는 "3차 병동 개원은 코이카의 프로젝트가 24년 동안 성공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한국은 엘알또 한국병원의 발전과 볼리비아 국가 발전을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인 의료 지원보다 그 의의와 가치가 크다. 특히 엘알또 한국병원 사업과 같이 일관성 있는 중장기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코이카는 볼리비아 보건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통합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다. K

사진 2



1) 보건 의료 네트워크(Red de Salud): 볼리비아 행정구역과 별개로 구성된 보건 의료 시스템. 각 네트워크 내 공공의료기관은 내부 수요에 따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통계자료를 생산해 보건당국에 보고함.

사진 1 엘알또 3차 한국병원의 전경

사진 2 엘알또 1차 한국병원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

사진 3 1차, 3차 병원과 연결된 엘알또 2차 한국병원

사진 3



사진 1



캄보디아 국립어린이병원 병동 신축 및 역량 강화 사업

한국의 노하우 전수로 3차 병원 위상에 걸맞은 병원으로

캄보디아의 수도로 가장 큰 도시인 프놈펜에는 캄보디아 정부가 운영하는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자 어린이전문병원인 국립어린이병원(National Pediatric Hospital)이 있다. 3차 병원인 국립어린이병원에는 프놈펜을 넘어 캄보디아 전역에서 중증 환자가 찾아오지만, 그 위상에 걸맞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코이카는 국립어린이병원의 전반적인 역량을 끌어올리는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내과계 병동건립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을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2027년까지 5년간 총 1600만 달러를 투입해 3차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캄보디아 내 어린이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내과계 진료동 신축 및 진료 환경 개선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내과계 병동건립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은 코이카가 두 번째로 진행하는 국립어린이병원 지원 사업이다. 국립어린이병원은 1974년에 1차 보건의료기관인 아동건강보호기관[1]으로 개원했다.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이 점차 늘어나며, 코이카의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기능개선사업(2013-2018)'을 통해 노후한 시설을 정비 및 개선하고, 상급의료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이 된 이후에도 최상급 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특히 약 14개 건물에 진료과와 각종 시설이 분산해 있어 환자 이동의 문제가 발생하고, 진료과 협진 등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코이카는 총 5층, 연면적 8715㎡ 규모의 내과계 진료동을 신축하기로 했다. 내과계 진료동은 2026년 완공 예정이다. 진료동이 완공되면 진료과들은 기존 병동과 신축 병동에 재배치될 예정이며, 진료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신축 병동은 향후 5년 이내에 최소 185개 병상이 더 필요하다는 입원 환자 추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총 196개 병상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병동은 외래 10개 과와 병동 5개 과(소화기내과, 영양과, 호흡기내과, 혈액과, 종양과)로 구성된다. 진료동 신축 일정에 맞춰 의료장비, 진료·행정용 컴퓨터 등 1900여 점의 의료·비의료 기자재 일체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속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국립어린이병원은 캄보디아 소아·청소년 대상 의료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의료서비스의 질과 병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자체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 예비조사 단계에서부터 국립어린이병원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병원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이에 코이카는 본 사업을 통해 병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병원 운영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립어린이병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담은 마스터플랜은 2022년 말부터 개발에 착수한다. 먼저 외부 컨설팅업체와 협력해 병원 관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개발을 위한 워크숍과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의 병원 운영 전문가를 현지로 파견, 자문을 통해 병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 및 마스터플랜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병원 관리자 및 보건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초청 연수도 예정되어 있다.

병원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병원 운영 전문가도 파견한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료 질 관리 전문가, 병원 내 2차 감염 위험을 관리하는 감염 관리 전문가 등을 3주씩 3회에 걸쳐 캄보디아에 파견한다. 이들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과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한 운영 체계 수립을 도울 예정이다. 병원 운영 시스템이 개선되면 한결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게 됨은 물론 캄보디아의 보건의료 체계 및 의료 관리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진료·연구·교육 삼박자 역량 강화

3차 병원은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본연의 진료 기능 외에도 국가 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를 선도하는 교육 기능, 임상 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 기능 또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능이 맞물려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이카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진료 역량, 연구 역량, 교육 역량,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국립어린이병원의 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진료 역량 중에서도 세부 분과별 전문 인력 양성이다. 국립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169명 중 소아분과 전문성을 지닌 의사는 11명(6.5%)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세부 진료과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초청 연수와 현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국립어린이병원의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존에 별개로 진행하던 초청 연수와 현지 교육을 통합해 사전 현지 교육-초청 연수-사후 현지 교육의 3단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수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중 핵심이 되는 초청 연수는 연도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1차 연도인 2023년에는 혈액/종양내과와 재활신경의학과, 2024년에는 호흡기/알러지과와 이비인후과, 2025년에는 신장/내분비학과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연구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캄보디아 주요 10대 소아질병[2]에 대한 연구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10대 소아질병에 대한 임상 연구 과제 발굴을 독려하기 위해 병원 내부 공모도를 실시해 연구비용 5000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술지 연구논문 투고비, 과제 발표를 위한 학회 참가비용 등도 지원한다. 유의미한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 역량 측면에서는 세부 진료과별 지식 공유 활동과 병동별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위에 언급한 의료진 초청 연수 및 현지 교육에 전문 분야별 TOT[3]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연수에 참여한 의료진을 전문 분야별 마스터 트레이너로 양성할 계획이다. 마스터 트레이너들이 현장으로 복귀해 캄보디아 내의 다른 의료진을 교육하는 전파 교육이 자리 잡으면 현지 어린이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어린이병원의 교육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코이카는 보건의료 분야 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 기술, 병원 설립, 운영 경험 등을 개도국의 특성에 맞게 전수해 왔다. 특히 병원 운영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자체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고, 자가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왔다. 코이카는 본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국립어린이병원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3차 병원의 위상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캄보디아 영유아, 청소년에게 한층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SDGs 3번 목표인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달성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K

1) Institute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s Health

2) 2019년 조사 결과, 국립어린이병원의 상위 10개 소아질병은 뎅기열, 인후염, 급성 장관염, 급성설사, 모세기관지염, 폐렴, 천식, 지중해빈혈, 신생아 질환, 안과감염증이다.

3) Training of Trainers (연수를 통해 양성된 마스터 트레이너가 캄보디아 내 다른 의료진을 교육하는 것)

사진 1 캄보디아 국립어린이병원 전경

사진 2 캄보디아 국립어린이병원의 내부 시설

사진 2





사진 1

도미니카공화국 미성년자 임신 방지 사업

청소년 임신 문제 해결, 빈곤의 고리를 끊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섬나라다. 인구는 약 1,100만 명으로, 특히 청소년 인구의 비율이 총인구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젊은 인구가 많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지만, 청소년 출산율이 전체 분만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미성년 임신 문제가 심각해 미성년 개인 삶의 질이나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성년 임신은 학업 중단과 그로 인한 소득 감소, 의료비 증가 등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에서는 미성년 임신을 포함한 성 및 생식 문제를 국가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에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성년 임신 방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코이카에서도 2006년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친 '미성년 임신방지 및 보건관리 강화사업'을 통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의료 지원으로 시작한 청소년 임신 예방 및 조기 진단

미성년 임산부는 조기 출산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합병증 발생 위험이 성인 임산부에 비해 높다. 때문에 미성년 임산부의 상당수가 사망 위험에 노출되며, 태어난 아이도 저체중이거나 미숙아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 이에 코이카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도미니카공화국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환경개선' 1차 사업을 실시하였다. 40만 달러를 투입해 도미니카공화국의 수도 산토도밍고 외 4개 지역, 6개 병원에 의료 기자재를 지원한 것이다. 사업을 통해 보급된 초음파기기 등 기초검사 장비, 수술 장비 등은 보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결과적으로' 미성년 임신 예방 및 조기 진단뿐만 아니라 모성 사망률 감소 효과도 가져왔다. 이외에도 코이카는 청소년 성교육 및 지역 보건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미성년 보건 전반, 청소년 보건지도자 양성과 성병 및 HIV/AIDS 관리, 청소년 상담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워크숍도 개최했다.

중남미 최초의 성보건센터 설립

1차 사업이 보건에 집중됐다면, 2차 사업은 미성년 임신 방지를 위한 인식 및 태도 개선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30만 달러를 투입한 2차 사업의 핵심은 도미니카공화국 최초의 청소년 성보건센터 설립이었다. 학교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사회 규범상 성 보건에 대한 인식이 낮아 더 많은 학생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코이카는 2015년 2월, 도미니카공화국 수도인 산토도밍고에 330㎡ 규모의 산토도밍고 성보건센터를 설립했다. 성보건센터의 체험 공간과 라운딩 프로그램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 성문화센터를 벤치마킹했다. 한편으로는 정책 관계자와 보건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자체에서 센터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2008, 2009년 2회에 걸쳐 도미니카공화국의 여성부, 보건부 등 관련 기관 정책 담당자와 실무진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하고 현지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 보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역시 진행했다.

임신·모자보건·성병 등 여성의 성과 생식 건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도 이뤄졌다. 도미니카공화국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인식은 임신한 청소년을 비난하고, 미성년 임산부가 자기 신체와 미래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세태를 바꾸기 위해 사업기간 동안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미성년 임신에 대한 의식 제고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했다. 캠페인은 공고한 사회 규범에 작지만 의미 있는 균열을 내고 있다.

코이카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함께하는 청소년 임신 방지 정책 확산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카공화국의 미성년자 임신율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청소년 임신 예방 전략 2011-2016'을 세우고, 청소년 임신의 획기적인 감소를 국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았다. 도미니카공화국 여성부에서는 청소년 임신 예방 정책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코이카에 성보건센터 추가 건립을 요청해 왔다. 코이카는 2018년 4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미성년자 임신 방지 및 여성보건환경개선' 3차 사업을 시작했다. 산토도밍고 성보건센터의 후속 지원과 산후안 성보건센터의 신축이 2023년까지 추진하는 3차 사업의 핵심이다.

먼저 산토도밍고 성보건센터의 후속 지원은 임신 예방, 청소년 임산부 관리, 여성 인권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청소년 임신 예방 전략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산토도밍고 성보건센터에서는 임신 예방 교육 외에도 성생식 권리, 피임의 중요성 등 연령대별 맞춤형 성교육을 진행하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한다. 또한 또래지킴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에 앞장서고,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래지킴이란, 지역 내 또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성년 임신 방지 캠페인을 펼치는 청소년 임신방지 리더다. 코로나19에 대응해 또래지킴이와 성교육의 원격 지원도 이뤄졌는데, 비대면 교육 영상과 함께 원격 교육에 필요한 디지털기기와 인터넷 이용권도 지원하고, 강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두 번째 성보건센터가 들어설 산후안 지역은 인구수와 경제 규모가 산도도밍고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다. 이곳 또한 사회·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지역으로, 최근 10년간 청소년 임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8개의 전시 공간과 교육시설을 갖춘 약 800m² 규모의 공간으로 계획된 성보건센터는 2021년 3월 건축부지를 확정해 공사에 들어갔고, 20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다. 코이카에서는 성보건센터 신축 외에도 전시 기획 및 설치, 차량 및 기자재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운영 인력 역량 강화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후 성보건센터의 운영은 산토도밍고 성보건센터에서 경험을 쌓은 도미니카공화국 여성부가 주도하게 된다.

코이카와 함께 중남미 미성년 임신 예방에 앞장서는 도미니카공화국

'미성년자 임신 방지 및 여성보건환경개선' 사업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청소년 성보건 정책과 프로그램을 현지 상황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식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된 성교육을 도미니카공화국 여성부에서 평가한 결과, 청소년의 관련 지식수준이 높아진 것은 물론 가톨릭 문화권에서 금기시되던 성에 대한 부모-청소년 간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성관계 시작 연령 지연, 피임기구의 올바른 사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청소년 임신 문제가 심각한 주변 중남미 국가들에 본 사업의 성공 경험이 확산되길 원하고 있다. 2022년 10월에는 이를 위한 국제 세미나도 예정돼 있다. 코이카는 앞으로 도미니카공화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중남미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청소년 임신 예방 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이 지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미성년자 임신율이 높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K



사진 2

사진 1 도미니카공화국 청소년임신방지 활동 중인 또래지킴이 1기

사진 2 또래지킴이 1기의 수료식 현장



가나 CHPS 기반의 지역보건체계 강화사업(CHPS+)

CHPS, 보건 강화 사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다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빈곤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보건의료 수준은 지역별로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나라다. 특히 가나 북동쪽에 위치한 어퍼이스트(Upper East)주는 가나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110만 명이 넘는 인구 대부분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가나 정부는 고유의 보건체계인 CHPS[1]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기초 보건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 했지만, 관련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의료 전문성 및 장비 부족, 지역사회의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번번이 한계에 부딪혔다. 코이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CHPS 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PBA[2]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CHPS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했다.

가나 고유의 보건체계 CHPS, 코이카와 만나다

CHPS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마을보건 봉사자 및 간호사가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나 고유의 지역 기반 보건체계를 말한다. 가정 기반의 산전후 관리, 질병 예방 및 보건 증진을 위한 상담·교육 등 예방적 활동을 비롯해 환자의 발견 및 이송, 가벼운 질환의 직접 치료 등 1차 보건의료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한다.

가나는 1990년대 말부터 CHPS 체계를 통해 기초보건, 특히 분만·가족계획·아동 예방접종·산전후 관리 등 모자보건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CHPS의 확대와 활성화는 좀처럼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2018년 CHPS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5,918개 CHPS 존(Zone) 중 13%만 활성화돼 있었다.

CHPS의 확대 및 활성화가 한계에 부딪힌 주요 이유 중 하나는 CHPS의 핵심 인력인 마을보건 봉사자에 대한 관리 미흡과 낮은 처우였다. 마을보건 봉사자는 적절한 교육·지도감독이나 보상 체계 없이 보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터라 사업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가나 정부는 마을보건 봉사자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가나의 의료체계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지역사회 보건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2014년 가나 정부는 이와 관련한 지원을 코이카에 요청해 왔다. 코이카는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초에 요청받은 사업 범위를 넓혀 CHPS 보건시설 확대, 응급 전원 체계 마련, 거버넌스 역량 향상 등 통합적인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가나 측과 협의했다. 사업 대상지는 어퍼이스트주 13개 군, CHPS 구역 120곳이었다.

달라진 CHPS, 모자보건 및 지역보건체계 수준을 올리다

CHPS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역보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관심과 동참을 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코이카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통해 CHPS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했다. 또한 지역사회 리더가 CHPS 마을보건 봉사자를 선정하면, 이를 다시 공식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봉사자들의 자긍심도 높였다.

CHPS 체계를 뒷받침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및 동기부여도 진행했다. 각 가정을 방문해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보건 봉사자 480명에게는 보건 관련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더불어 자전거, 활동 키트, 장화·우비 등 보호 장비도 지원했다. 무엇보다 성과 기반 시상, 건강보험료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해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CHPS 종사자를 지원하고, 마을보건 봉사자를 지도하고 관리 감독하는 마을보건 관리회의 600개를 대상으로는 관리감독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했다.

모자보건 서비스 수준도 향상시켰다. CHPS에서는 모자보건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보건의료 종사자, 관련 시설 및 의료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곳이 많았고, 건물 자체가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이에 코이카는 보건시설 건물 13개를 신축했으며, 휴대용 초음파 기기와 응급 산과 서비스 장비 등 모자보건 관련 의료 장비를 CHPS 구역 120곳과 보건소 48곳에 공급했다. 마을보건 간호사를 비롯해 조산사, 의사 등 정규 보건 인력에게는 모성과 신생아 관리 등에 관한 의료 기술 재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했으며, 한국 초청 연수를 시행했다.

이외에 CHPS 체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도 병행했다. 사업 첫해인 2016년, 코이카는 삼성전자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총 2565대의 태블릿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의료 기록을 태블릿 기기를 통해 곧바로 전산화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내 응급 전원 체계 강화도 진행했다. 응급 산모의 운송수단인 삼륜 오토바이 앰뷸런스 지원과 함께 응급환자 치료 기술과 장비 지원, 응급 상황에 대한 교육훈련도 이뤄졌다. 마을보건 오토바이 120대를 지원해 노후화된 운송수단을 교체할 수 있었다. 관리감독과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리더십·재정관리·사업관리 분야 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다.

CHPS 사업 최초의 PBA 사업, 그 성공 열쇠는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어퍼이스트주의 2021년 모성 사망률은 사업 시작 연도(2016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5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4회 이상 산전 관리를 받은 임산부 비율은 87%(2016년)에서 97.4%(2020년)로 상승했으며, 숙련된 조산원에 의한 분만 비율도 79.8%(2016년)에서 92.8%(2020년)로 크게 높아졌다.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약 47만 명, 간접 수혜자는 1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수원국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덕분이었다. 본 사업은 가나 정부가 CHPS 관련 사업에서 최초로 시도한 PBA 사업이었다. 수원국 시스템을 활용해 현지 주도로 이뤄지는 PBA 사업은 수원국의 역량 강화, 거래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부패의 위험, 성과 측정의 어려움 등의 단점도 갖고 있다. 이에 코이카는 독립된 펀드 계좌 개설·사용, 보고서 검토 후 반기별 사업비 송금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주 보건청 내에 한국인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사업실행전담반(PIU)을 설치해 사업을 총괄 관리·감독하며, 중앙보건청 및 어퍼이스트주 보건청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본 사업은 새로운 전략과 시도를 통해 수원국이 당면한 한계를 극복하고, CHPS의 활성화를 성공시킨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 성과와 집행 과정에서 수원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한 본 사업의 방식이 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방향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코이카는 본 사업 성과를 2023년에 국제학술지에 기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코이카의 국제협력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나갈 것이다. K



사진 1

1) Community-based Health Planning and Services

2) Program-based Approach: 수원국 현지 주도의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조율된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개발협력 방법

사진 1 가나 CHPS 마을 봉사자들에게 교육중인 의료진


사진 1

콜롬비아 과채류 시장경쟁력 강화사업

농산물 가치사슬 강화로 농촌 빈곤 해결에 나서다

남아메리카 대륙 북서쪽에 위치한 콜롬비아는 대한민국보다 약 11배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의 75.5%가 농지이지만, 농촌 가구의 90% 이상이 자급자족 형태의 영농을 하고 있어 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저장·유통·가공·판매로 이어지는 농촌 경제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50년간 이어진 내전은 농촌 지역에 큰 피해를 주어 농민들은 오랫동안 빈곤에 허덕여 왔다. 이에 코이카는 콜롬비아 정부, UNDP(유엔개발계획)와 협력해 2011년부터 농촌지역 빈곤퇴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코이카와 콜롬비아의 농촌 개발 협력을 '콜롬비아 과채류 시장경쟁력 강화사업(2016-2021)' 중심으로 살펴봤다.

농업 강국의 가능성 지닌 콜롬비아

지속적인 농촌 개발은 정권에 따라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콜롬비아의 국가 기본 정책이다. 현재의 농촌은 빈곤이 만연하고, 생산성도 낮지만, 콜롬비아는 농업에 적합한 다양한 기후와 지형을 갖추고 있어 농산물 생산 증대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농촌 개발 및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콜롬비아의 중요한 국가 정책목표이며,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코이카와 콜롬비아의 첫 번째 농촌 개발 협력 사업은 '콜롬비아 농촌지역 빈곤퇴치 사업(2011-2017)'이었다. 코이카, UNDP, INCODER[1]가 공동으로 추진해 카카오·커피·우추바 등 농작물 생산량과 시장성을 크게 개선했다. 이후 콜롬비아 정부는 후속 사업으로 '콜롬비아 과채류 시장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코이카에 요청해 왔다. 이에 코이카는 볼리바르, 톨리마, 카우카 3개 주를 대상지로 2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세 곳 모두 수년 동안 이어진 무력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고, 콜롬비아 내에서도 빈곤지수가 높은 농촌 지역이었다.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 바탕으로 생산성 114% 상승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히 돋보였던 것은 이전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둔 '지역 포용적 경제성장'[2] 방법론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점이다. 지역 포용적 경제성장이란, 참여자를 '수동적인 수혜자'에서 '능동적인 발전의 주체'로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을 끌어내는 방법론이다. 코이카는 이 방법론을 활용해 각 영농조합이 사업의 활동 목표 및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합들의 자발적 의사결정을 통해 신기술을 영농에 적용하게 함으로써, 농촌 개발 사업 초반에 흔히 나타나는 신기술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빠르게 해소했다. 지역 포용적 경제성장은 사업에 대한 영농조합의 주인 의식을 높여 농촌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열쇠가 됐다.

활동 계획 수립 후, 코이카는 지역의 대표 작물인 아보카도·카카오·레몬·참마 같은 4개 과채류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부터 빠르게 추진했다. 우량품종을 보급해 상품의 경쟁력을 높였으며, 가뭄·서리 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개시설을 구축했다. 재배면적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물과 비료의 이용 효율 증대, 병해충 방제 기술, 친환경 재배 확대 기술 등도 전수했다.

그 결과 작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4개 작물의 평균 생산성이 사업 시행 전 대비 114%까지 대폭 높아졌다. 4개 과채류의 1등품 비율도 평균 39.3%나 상승했다. 농가들은 특히 1등급 비중 상승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1등급 비중이 높아지면서 참마는 kg당 6~7배, 아보카도는 4~5배 비싼 가격에 출하할 수 있어 농가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치사슬 강화로 판매량 133% 증가

농산물 가치사슬이란, 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유통·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벌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과거에는 생산 기반의 확충 위주로 개도국의 농업 개발 지원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농산물 가치사슬을 분석해 부가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안이 농촌 빈곤을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사업에서도 농산물 가치사슬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다. 그 결과 4개 작물 평균 판매량이 133%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코이카는 우선 조합 단위의 공동상업화를 도모했다. 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면 좀 더 유리한 가격과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업 후반부인 2020년, 22개 조합의 공동상업화 규모는 사업 시행 전보다 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 수출을 위한 수출등록부 취득도 진행해 총 298건의 수출 등록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농민 또는 조합이 직접 수출업체에 가공·포장된 농산물을 판매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카카오의 경우 국제품질인증도 총 52건을 취득해 수출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와 함께 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공동작업장·노지건조장 설치, 사무실 설치 및 사무기기 지원, 재무 교육 제공, 소액 금융 지원 등이 이뤄졌다. 생산관리 및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연수, 초청 연수도 진행했다.

농촌 경제의 가치사슬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한 성과였다. 총 31개의 민관 유관기관이 본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으며, 외부 자금 103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됐다. 이를 통해 설립한 농기계 임대센터, 농자재센터 등은 지역 농민에게 농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콜롬비아 농촌 지역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콜롬비아 과채류 시장경쟁력 강화사업'은 빈곤에 처한 콜롬비아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사업 종료 후 지역 내 가구당 연간소득은 830만 페소(한화 약 270만 원)에서 1,260만 페소(한화 약 410만 원)로 약 52% 증가했으며, 작물의 생산성 및 판매량도 당초 목표를 훨씬 웃돌아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SDGs 목표 2(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달성에도 기여함은 물론이다.

본 사업이 성공함에 따라 UNDP와 콜롬비아 바예데카우카 주정부는 별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1만 5,000가구 대상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 본 사업의 방법론을 적용할 예정이다. 코이카는 2차 사업의 성과 및 결과를 반영해 '콜롬비아 캐리비안 지역 농업 가치사슬 및 기술 역량강화사업(2022~2025년)'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앞으로도 코이카는 콜롬비아 농촌 개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나아가 다른 개도국의 농촌이 빈곤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K

1) INCODER(Instituto Colombiano de Desarrollo Rural) : 콜롬비아농촌개발기구

2) DEI Rural(Desarrollo Economico Incluyente Rural)

3) 종료 평가 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농가들은 1등급 비중 상승에 대해 매우 만족 40건(66%), 만족 21건(34%)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사진 1 참마를 수확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콜롬비아 과채류 시장경쟁력 강화사업 참여자

사진 2 수확한 농작물을 정리하는 현장


사진 2



사진 1

개도국 코로나19 대응 위한 ABC 프로그램

코로나19 극복과 그 이후를 준비하는 코이카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완화하며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에게는 아직 멀고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이 운영하는 글로벌 통계 사이트(OWID)에 따르면 최소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아프리카인은 총인구의 20%에도 못 미친다. 개도국은 아직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ABC 프로그램은 우리 정부의 '다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 구상(ODA KOREA : Building TRUST)'하에 추진 중인 코이카의 '개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코이카가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과 위협에 시달리는 개도국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 방역 물품 지원, 감염병 대응 체계 수립 등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방역 역량을 키우는 코이카의 ABC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코이카, ABC 프로그램으로 국제 방역에 나서다

ABC 프로그램은 보건 취약국 지원(Action to Fragility),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Building Capacity), 글로벌 연대 강화(Comprehensive Cooperation) 프로그램의 약어다. 이는 개도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한 ABC 프로그램의 3대 추진 방향이기도 하다. 그중 '보건 의료 취약국 지원'은 진단키트 및 백신 확보 등 보건 지원, 식량 및 생필품 보급 등 인도적 긴급 지원, 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 등을 포함한다.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중장기 지원책이다. 접종 인프라 지원, 진단·검역·치료 인력 역량 강화, 시설 확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글로벌 연대 강화'는 한국의 우수한 감염병 대응 경험 공유, 세계시민 연대 강화를 위한 세계시민 교육, 한국 의료 기자재 지원 및 혁신 기술 확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ABC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단계는 단기(2020~2021년)와 중기(2022년 이후)로 구분한다. 단기에는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중기 이후부터는 감염병 관리·보건 역량 강화 쪽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중심축을 옮기기로 했다. ABC 프로그램 운영 첫해인 2020년에는 약 1억5863만 달러 규모로 644건의 사업을 추진했다. 116개국 약 3802만 명이 ABC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 및 사회·경제적 혜택을 받았다.

2021년, 전년 대비 수혜자 71.6% 증가

2021년에도 ABC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프로그램 규모는 약 1억 7165만 달러로 전년 대비 8.2% 커졌으며, 2020년보다 327건 줄어든 317건의 사업을 68개국에서 진행했다. 사업 수 자체는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사업별 규모는 커져 ABC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본 사람이 전년 대비 약 71.6% 증가한 6524만 명 이상이었다.

코이카는 먼저 '보건취약국 지원'에 나서 백신 개발과 개도국 백신 보급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했다. 코로나19 백신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국제 협력 체계인 ACT-A[1]와 코백스(COVAX)[2]에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 것이다. 또한 긴급 구호 차원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88만 명을 대상으로 88만 달러 상당의 식량과 생필품을 ▶▶

▶ 을, 660만 달러 상당의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도 전달했다. 취약계층 6500여 명에게는 취업과 생산 활동을 지원했다.

2021년 ABC 프로그램 중 특히 눈에 띄는 성과는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다. 감염병 대응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역학조사관 1246명을 양성했으며, 32개 입국 지점에 이들을 투입했다. 역학조사관들은 22만 명을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해 코로나19 대응에 핵심 역할을 했다. 또한 백신 접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프리카 5개국에 25개 백신 센터를 구축했으며, 백신 콜드체인과 접종 관련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기초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641개의 화장실, 세정대, 식수대를 31개국에 설치했다. 또한 208만 명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글로벌 연대 강화' 차원에서는 보건 의료 전문가 연수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감염병 대응 역량과 대응 체계의 전수가 이뤄졌다. 특히 한국의 방역전문가가 파견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를 벤치마킹한 방역본부가 만들어져 감염률이 이웃 국가의 18%에 그치는 성과를 거뒀다.

2022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원년

2022년은 코이카가 ABC 프로그램을 회복 단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원년이다. 코이카는 긴급 대응 중심의 지원에서 감염병 관리·보건 역량 강화로 지원 방향을 전환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각 나라의 수요를 고려해 인도적 지원,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 등 긴급 대응 단계의 사업도 제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개도국의 공평한 백신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기초 위생 환경 조성, 감염병 예방 인식 제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한국은 2021년 6월, G7 정상회의에서 2022년에도 개도국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1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코이카는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공평한 백신접종에 힘쓰는 한편 주사기, 백신 운송용 냉장 차량 등을 지원해 안전한 백신 유통과 접종률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식수대, 화장실 설치 등 감염병 예방 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과 인적 자원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역학조사관 양성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역학조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초저온 냉장고, 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핵산 추출 장비, 실험실 소모품 등 감염병 실험실 진단 물품도 추가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하고 있지만, 자체 역량이 부족한 가난한 국가들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심각한 위협이다. 당장의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들 국가 자체적으로 리더십을 갖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우수한 방역 체계와 역량, 기술을 전수하는 ABC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에서 환영받는 이유다. 특히 코이카가 지속해왔던 의료체계 개선, 병원 건립 등 보건 의료 사업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개발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촌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개도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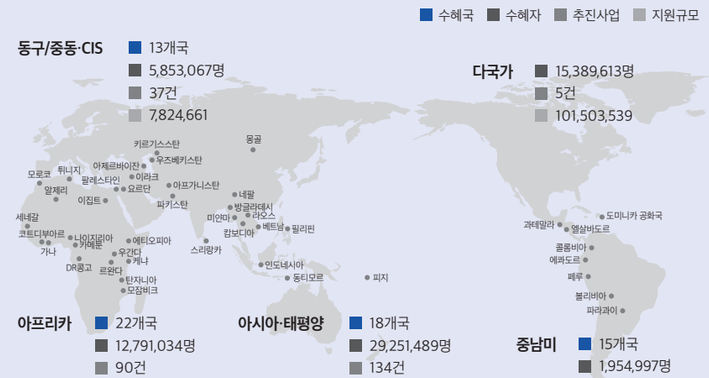
1) 코로나19 대응 관련 수단들에 대한 접근성 촉진 이니셔티브(ACT-A: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력체계다.

2) ODA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개도국에 백신을 지원하는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 공여국들이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과 선구매 계약을 체결해 백신을 공동 구매하고, 이를 개도국에 백신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사진 1 AB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백신 수송 차량을 지원받는 필리핀

코이카 ABC 프로그램 2020-2024

ABC 프로그램 추진 현황



수혜국	수혜자	추진사업	지원규모
68개국	65,240,200명	317건	171,652,326달러

주요 지원 실적

보건 — 총예산 16,742만불 | 추진사업 233건 | 수혜자 6,242만명

진단키트 645만US$ | 159만명 | 159만회	감염병 예방교육 및 전문인력 역량강화 997만US$ | 215만명 | 4만건
방역물품 및 방역시설 지원 660만US$ | 848만명 | 650개/건	백신개발/보급 및 접종 지원 10,548만US$ | 3,113만명 | 1,359만건
의료시설 및 의료기자재 지원 1,588만US$ | 1,088만명 | 95만대	위생시설 103만US$ | 34만명 | 5,623대

사회경제 (생계지원/교육/기타) — 총예산 424만불 | 추진사업 84건 | 수혜자 282만명

생필품/긴급식량 88만US$ | 88만명 | 39만 패키지	원격교육 181만US$ | 78만명 | 22건
원격봉사 6만US$ | 9만명 | 16건	고용 지원 59만US$ | 4,115명 | 240건
생계활동 지원 2만US$ | 1,161명 | 8건	취약계층 지원 0.8만US$ | 1,220명 | 4건


사진 1

네팔 이주노동자 재정착 및 창업 지원 사업

돌아간 네팔 노동자들의 재정착 돕는 코이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매년 한국에 입국하는 네팔 노동자는 약 7000명 수준. 네팔은 한국과 고용허가제(EPS)[1] 협약을 맺은 16개국 중 가장 많은 노동자를 보내는 나라다. 이러한 해외 이주노동자는 네팔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며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대규모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조기에 귀국한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그와 관련된 자국 GDP(국내총생산)의 구조적 취약성은 네팔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코이카는 올해부터 800만 달러를 투입해 '한국에서 귀국한 네팔 노동자의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귀국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은 그 대상이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어 한국에서 네팔로 돌아간 귀국노동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던 한국 이주 네팔 노동자가 갖는 특성에 집중해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

귀국노동자 재정착 및 창업 정책 마련

이 사업은 귀국노동자의 취업생애주기(이주 전→이주→이주 후) 전반에 걸쳐 추진되며 정보 제공·교육·창업 기금 운영 등 다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우선 귀국노동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네팔 정부의 정책 수립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에서 돌아온 노동자 재정착 실태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해 코이카는 본 사업을 통해 귀국노동자 재정착 현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파악된 성별·나이 등 인적 특성, 거주 지역, 한국 취업 활동을 통해 형성한 재산 정도 등의 정보는 향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한국에서 귀국한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창업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네팔 노동부 관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국내 초청 연수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좀 더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귀국노동자 지원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공적인 재정착을 위한 기술·금융교육 지원 및 통합 정보 앱 개발

장기간 해외에서 머물다 귀국한 노동자가 본국에 재정착하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다. 한국에 비해 낮은 임금과 좋지 않은 처우로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다시 제3국 이주노동자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래서 코이카는 이주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취업교육부터 재정착에 성공하기 위한 각자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올 의지를 다지고, 한국에서 습득한 지식·기술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 입국 전후로는 금융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월급 관리와 귀국 후 재정착 자금 마련을 독려한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급여 대부분을 본국의 가족이 관리하는 상황을 감안해 가족 대상 금융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네팔로 귀국한 우수 숙련 기술인에 대해서는 온라인 멘토링을 6개월간 제공한다.

오랜 해외 이주노동 후 네팔에 귀국한 노동자들이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이 '정보 부족'이기 때문에 코이카는 재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다. 해당 앱은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코이카는 이 사업을 위해 고용허가제 담당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오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국 내 이주노동자 관련 기초 정보 제공, 취·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 기술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키우는 창업의 꿈

한국귀국네팔근로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네팔로 돌아간 귀국노동자의 70% 이상이 귀국 후 창업을 시도한다. 그러나 국제기구나 네팔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존 창업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자영업에 집중돼 있어 한국에서 귀국한 노동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았다.

코이카는 네팔 노동자들이 한국에서부터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잠재 기업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창업 기본과정에서는 기업가 정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기본 이론 교육이 온·오프라인으로 이뤄진다. 우수 수료자에게는 2주간의 창업 컨설팅과 창업 경연대회 예선 참가 기회도 주어진다.

귀국한 후에는 네팔 현지에서 창업 고급과정, 인큐베이터 과정을 통해 6개월간 다양한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창업 경연대회 결선 진출자에게는 창업 모델 피칭, 수상,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자 연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귀국노동자들이 성공적으로 재정착할 뿐 아니라 나아가 지역사회 고용 창출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창업 문턱 낮추는 500만 달러 규모의 창업 기금 조성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은 창업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네팔 일반 상업은행의 창업자금 대출의 경우 지원자 대비 최종 대출을 받는 비율이 2%에 불과하다. 이에 코이카는 네팔농업개발은행과 매칭펀드로 500만 달러 규모의 창업 지원 기금을 신설한다. 기존에 없던 중장기 대출과 규모가 큰 대출 실행을 적극 검토하고, 여성 귀국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창업자금 활용에 대한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파트너인 네팔농업개발은행은 해외 원조 자금 유치 경험이 풍부하며 5개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재정착 교육, 창업교육, 대출기금 신청 등 진행 시 지리적 거점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다. 코이카는 창업 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네팔농업개발은행 내에 펀드매니징팀을 신설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창업 기금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정보, 교육, 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 네팔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네팔 사회에 정착하고, 나아가 네팔 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네팔의 고용 증진 및 경제사회 발전의 선순환 체계 수립에 기여함으로써 SDGs 8의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 SDGs 9의 '산업화의 지속성 및 혁신 추구', SDGs 10의 '계획적이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 SDGs 16의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에도 힘을 보탠다. 한국도 1970년대 해외 이주노동으로 중동에서 자본과 기술을 축적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을 이루어온 경험이 있다. 네팔 귀환 귀국노동자들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네팔 경제발전의 주체로 바로 서기를, 그리하여 이 사업이 네팔과 한국 간 연대와 상생의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K


사진 2

1) 고용허가제(EPS): 한국 정부(고용노동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 기업에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진 1 네팔에서 '한국의 근로기준법' 관련 교육을 받는 네팔 근로자

사진 2 네팔의 사전취업교육센터에서 수강 중인 교육생


사진 1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상수급수연결 사업

안전한 물로 아비장 빈민가에 희망을 퍼 올리다

황금빛 태양을 머금은 서부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 그 가운데 위치한 '코트디부아르'. 1960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매년 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식민 지배를 이겨낸 모범 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심각한 경기침체를 맞게 됐으며, 2002년부터 10년 동안 내전이 계속됐다. 내전은 교육·보건 등 기초 사회 인프라를 붕괴시키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 대부분을 파괴했다.

2011년 내전 종식 후,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황폐해진 국가 경제와 사회 인프라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2011년에 「국가개발계획(PND) 2012~2015」를 수립했으며, 차기 전략인 「국가개발계획(PND) 2016~2020」에서는 특히 교육과 보건의료, 기초 위생 등 사회의 기본 인프라 개발 부문을 강화했다.

그중에서도 상수도 공급은 '식수 시스템 관리 선진화'라는 목표 아래 특히 중요하게 다뤄졌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주요 하천 3개에 대형 정수장을 설치해 상수원을 확보하고, 전국에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상수관 확충과 상수급수시설 연결 사업을 통해 빈곤 가정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자 했다.

상수급수연결 지원으로 아비장 시내 빈민 가정에 깨끗한 물 공급

코이카는 이러한 코트디부아르의 국가 전략에 부응해 '아비장시 상수급수연결 사업'을 시작했다. 아비장 시내 빈민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300만 달러 규모로 이뤄졌다. '떨어지는 낙엽'을 뜻하는 아비장(Abidjan)시는 코트디부아르의 옛 수도였다. 1983년에 야무수크로(Yamoussoukro)로 수도가 옮겨졌지만, 아비장은 여전히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로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아비장은 2011년 기준으로 국가 물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비장의 상수 일일 생산량은 40만㎥로, 필요량인 60만㎥의 2/3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코이카는 2015년 9월부터 아비장의 주요 빈민 지역 아보보(Abobo), 요푸공(Yopougong), 쿠마시(Koumassi) 지역 내 빈민 가정에 8810개의 상수급수시설을 연결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가족 구성원 수, 가장의 직업과 소득, 방 개수 등을 검토해 수혜 가정을 선정하고, 코트디부아르의 국영 수도회사 SODECI가 시행을 맡아 빠른 속도로 공사를 진척시켰다. 공사 중에 급수시설을 연결할 상수도관이 아예 없는 경우가 발견돼 수혜 가정 일부를 다시 선정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2017년 말에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

상수급수연결 공사와 상수도관 부설 공사까지 동시 지원

아비장시 상수급수연결 1차 사업 종료 후,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후속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 2차 사업의 대상지는 아비장시의 쿠마시 Grand Campement 지역이었다. 이곳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된 약 3만 가구, 7만 명의 빈민이 모여 사는 곳으로, 생활수준이 매우 열악했다. 특히 상수급수시설이 없는 것은 물론 상수도관 연결 자체가 안 된 곳이 많아 안전한 식수 확보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런 까닭에 이곳의 주민 대부분은 공동 주거 공간 내에 불법으로 급수전을 설치해 식수를 확보하거나, 불법 물 판매자에게 20L씩 물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었다. 물 한 통의 가격은 50CFA(원화 약 100원)로, 상수도관을 통해 공급받는 물값보다 10배 이상 비쌌다. 이도 어려우면 우물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물(지하수위 10m)과 화장실(깊이 5m)이 인접해 있어 오염된 물로 인한 수인성 질병이 빈번히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보건소를 찾는 환자 중 35%는 수인성 질병[1] 환자로, 보건 당국으로부터 대표적인 수인성 감염병인 콜레라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에 코이카는 2018년부터 607만 달러 규모의 2차 사업을 시작했다. 1차부터 이어진 상수급수연결 공사와 더불어 35km에 이르는 상수도관 설치 공사도 함께 진행해 더 많은 빈민가의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수도관 설계와 시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시공 능력을 꼼꼼하게 검증해 시공사를 선정했다. 상수급수연결 공사로 약 1만3000개의 급수시설을 가정에 연결하게 된다.

더불어 보건위생 교육과 수도세 납부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주민들은 물을 오래 보관할 경우 침전물이 바닥에 가라앉아 물이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믿는 등 잘못된 지식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하려면 종족별 지도자의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종족별 지도자로 이뤄진 보건위생위원회를 만들고, 소통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공동체의 요구와 필요를 잘 알고 있는 위원회 회원들이 먼저 교육받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확산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 효과를 높였다. 2차 사업은 2022년 10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사진 2


사진 3

안전한 식수 확보로 삶의 질 크게 향상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확보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이다. 코이카의 상수급수연결 사업으로 아비장시 빈민가의 주민들은 깨끗한 식수에 한결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의 기초 생활 여건은 물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 더는 불법 물 판매자에게 비싼 돈을 주고 물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져 물 구매 비용이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감소했다. 수입이 적은 빈민 가정의 특성상 물에 지출하는 비용이 줄면 일반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더불어 비위생적인 식수를 마셔 생긴 설사 등 수인병 질병도 감소했다. 이는 교육을 통해 올바른 보건 상식과 위생의 중요성을 알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 덕분이다. 또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식수를 구하는 데 쓰는 시간이 줄면서 다른 경제활동을 하거나 학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1차~2차 사업을 통해 아비장 빈민가 주민들의 삶에 희망이 생기는 것을 확인한 코이카는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아비장시 상수급수연결 3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600만 달러를 투입해 아비장 아보보(Abobo) 지역 13개 빈민 구역(약 6000가구)의 상수도관과 급수시설을 연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식수 접근성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깨끗한 물 관리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불평등을 해소하며 SDGs 3번과 6번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비장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깨끗한 물의 확보와 접근성은 건강, 소득 증대, 교육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연쇄적인 변화를 가능케 한다. 아비장시 상수급수연결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것이다. 본 사업이 코트디부아르의 지속적인 성장에 토대가 되어 코트디부아르가 다시 한번 서아프리카의 희망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K

1) 병원성 미생물이 물을 통해 전파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하며 목욕, 씻기, 물 마시기, 또는 오염된 물에 노출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전염

사진 1 코트디부아르 상수급수연결 사업을 위한 상수도 공사 현장

사진 2 사업 수혜자 자택에 설치된 급수전

사진 3 사업 수혜자 등록을 위해 대기하는 모습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균 교수

북반구 對 남반구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삼각협력의 주류화

지독하게도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보건 위기에서 파생되는 식량 위기와 글로벌 위험사회의 복합화, 그리고 기후·환경 문제까지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 국면은 악화일로에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미·중 간 전략 경쟁이라는 일차원적 글로벌 패권의 대립 구도가 중국-러시아 대(對) 미국-영국-EU-일본-호주 등과 같이 확대되면서 신냉전 공식이 고착함수로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글로벌 남반구의 부상(rise of the South)과 브릭스 같은 신흥 공여국의 도전을 기존 글로벌 북반구의 국제관계 질서에 대항하는 문제로 부각해 남반구 대 북반구의 갈등 구조를 전망하기도 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위기 속에서 한국이 처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글로벌 사회의 기대 등을 면밀하게 고려한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발협력 정책은 경제 위기 등이 확산되면 먼저 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에 더욱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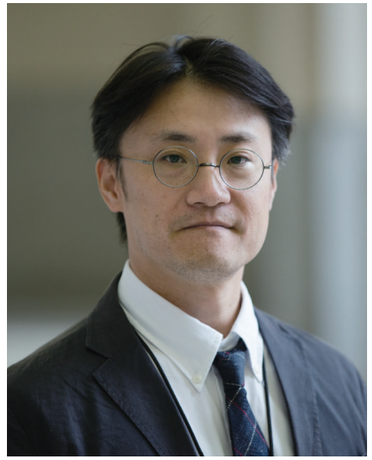
북반구-남반구 이분법적 갈등 구도

미국과 중국 간의 전방위적 경쟁 관계, 그리고 러우전쟁에서 점화된 신냉전 기류가 거시적으로는 글로벌 남반구 및 브릭스를 포함한 신흥 공여국과 전통적인 글로벌 북반구 간의 이분법적 갈등 구도를 고착화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대규모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중국의 핵심 경제권 구상으로 전략화되고 있다. 이에 G7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해 2021년 영국에서 '더 나은 세계의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을, 2022년 독일에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Investment: PGII)'을 남반구 개도국에 약속한다. 특히 PGII는 일대일로의 거점국 인프라 사업에 5년 동안 약 778조 원을 투자한다는 막대한 규모의 중국 봉쇄 전략이다. 중국의 공격적 인프라 투자로 인해 국가 부채의 덫에 빠진 스리랑카, 파키스탄, 잠비아 등이 이른바 '대출 제국주의'에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 G7의 해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구축한 쿼드(Quad)가 소다자주의로 일대일로와 경합하고 있다. 한국의 신정부가 지난 신남방정책을 벗어나서 쿼드 가입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는 가정하에, 미국 중심의 쿼드에 동조하는 한국에 중국이 보복성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이러한 북반구-남반구 경쟁 관계의 변수가 치밀하게 반영된 개발협력 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중국과 인도 간의 남반구 패권 경쟁

북반구-남반구 패권 경쟁의 글로벌 구도는 다시 남반구 역내에서 중국과 인도 간의 패권 경쟁으로 재현된다. 글로벌 남반구의 패권을 장악하기 ▸▸



이력사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동 대학 기획처 협력부처장을 역임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원의 학술지인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의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유엔체제학회, 한국국제 정치학회, 한국인권학회, 한국사회학회, 국제개발협력학회 등의 운영위원을 역임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국가지속 가능 발전위원회 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UNSDSN 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비상임이사, UNESCO 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학술부문에서는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풀브라이트연구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협력연구원, 독일 괴테대학교 AFRASO 공동연구원, 독일 튀빙겐대학교 Global South 프로젝트 참여연구원, 세계정치학회 RC18 운영위원 등으로 참여해 왔다. 시민 사회부문에서는 경실련 국제위원장, 발전대안 피다 전문위원과 KCOC 정책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 위해 중국과 인도는 남남협력을 정치적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측면에 확인할 수 있다. 인도가 브릭스 신개발은행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쿼드에 가입한 전략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인도는 EU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 백신 공장 역할을 자처하고 남반구 개도국에 백신을 공급하며 중국의 백신 외교와 경합하는 전략을 취한다. 그러나 인도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불편한 관계만을 고집하지 않고 중국과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우전쟁의 책임을 러시아에 묻지 않는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신정부가 신남방정책을 견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협력 파트너로 인식할 것인지 신냉전시대의 남남협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구상해야 할 때이다.

망각된 SDGs, 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패

미·중 전략 경쟁과 중·인 간의 남반구 패권 경쟁은 2015년에 국제사회가 선포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망각시키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철저히 분절화하고 있다. 조모(Jomo K. S.)가 피력했듯이, 신냉전시대의 개발원조는 더는 SDGs 이행 또는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처방이 아니라 '힘을 위한 원조(Aid for Power, 이하 AfP)'가 지속적으로 경합하고 있는 형국이다. 개발협력의 방향도 점차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또한 남반구 신흥 공여국의 확산과 국익 중심의 이합집산은 기존의 남남협력이 가지고 있던 반둥정신[1]의 고유한 가치를 쇠락시키면서 AfP가 남반구와 북반구 공여국들이 공유하는 기본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으로서 삼각협력의 주류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되고, 중국 중심의 원조 정책에 부응하면 곧바로 미국의 볼멘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신정부가 쿼드에 연착륙하고 G7의 PGII에 일정 정도 협력하며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현실 국제관계의 복잡한 공식을 풀기 위해서는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 현재 한국이 모색할 수 있는 최적의 개발협력 해법일 것이다. 삼각협력은 개념상 기존의 남남협력에 글로벌 북반구 공여 주체 또는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3자 이상이 협력하는 개발 파트너십이다. 삼각협력은 한국과 같은 제3의 주체가 개입해 개발 프로젝트를 확장하거나 지속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특정 개도국 파트너를 대상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이행할 때 중국 또는 인도와 협력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삼각협력에 참여하는 개발 주체가 최소 셋이라는 점에서 인도와 미국을 공동의 프로젝트 파트너로 소환할 수 있고, 중국과 일본이 한국과 함께 특정 개도국에 개발원조를 공동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신냉전 구도하에 경합하고 있는 개발협력 공여국들을 연계하고 최소한의 협력 가능성을 도모하는 매개체로서 한국은 자국의 위치 권력을 설정할 수 있다. 특정 아프리카 협력 대상국에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분적이라도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공여 주체들을 삼각협력의 장으로 초대할 수 있다면, 한국은 개발협력을 통해 미·중의 전략 경쟁과 중·인의 패권 경쟁 등을 전략적으로 회피하거나 갈등의 임계치를 낮추는 대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한국은 신냉전의 흔동 속에 삼각협력을 국제개발협력 전략으로 주류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K

1) 1955년에 반둥 회의에서 채택한 평화 십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 아프리카 여러 나라 사이의 연대 정신. 중립주의와 협력을 기본으로 기본적 인권과 주권의 존중, 인종 평등, 내정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따위이다.



주목할만한 ODA 연구

ODA 동향 알아보기

글로벌 개발협력 기관인 KOICA는 개발도상국 개발환경과 최신 ODA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달의 주목할만한 KOICA ODA 관련 이슈를 소개합니다.

연구보고서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 KOICA 개발협력 프로젝트 데이터 중심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가치는 높아지고,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은 전 세계의 디지털화를 가속했다. 데이터 활용 역량은 개인 또는 기관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다. KOICA는 데이터의 원활한 수집·관리·활용 프로세스와 시스템 개선, 인프라 최신화를 위한 '2021년 디지털 전환 전략 '21-'25'를 수립, '디지털 KOICA'를 선언했다.

KOICA는 그간의 개발협력 관련 데이터 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데이터를 통한 사업 현황과 성과 분석, 향후 사업 방향성과 전략수립 활용을 위해 동일한 표준과 규정으로 관리하는 양질의 데이터 수집·관리·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KOICA의 데이터는 개발협력 사업 데이터가 핵심이다. 개발협력 사업 데이터는 언어장벽과 시스템의 한계라는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환경으로 수집과 관리가 난해하고 어렵다.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KOICA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업무별 입력 데이터의 정의와 입력방식에 대한 규칙부터 품질기준 수립 등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디지털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브리핑

COVID-19 백신 지원은 ODA인가?

COVID-19 발생 후 각국의 백신 확보 노력으로 선진국 중심의 빠른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등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은 현저히 낮다. 모두가 안전해야 진정한 극복이 이루어진다(No one is safe until every one is safe)고 외치고 있으나, 국가 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COVID-19 극복을 위해 선진국은 자국 내 접종을 위해 확보한 백신의 일부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다. OECD는 2022년 2월, COVID-19 백신 지원도 ODA로 계상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자국 내 백신 수급을 위해 초과 구매한 여분의 백신을 지원하는 것이 선진국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닌지, 개발도상국의 백신 보관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잔여 백신 지원을 ODA로 인정하는 것은 특정 국가에 집중된 백신을 더 많은 국가에 빠르게 재배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백신 확보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 COVID-19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모두의 대응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백신의 가치실현 계기를 만들고, 모두의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한눈에 보는 사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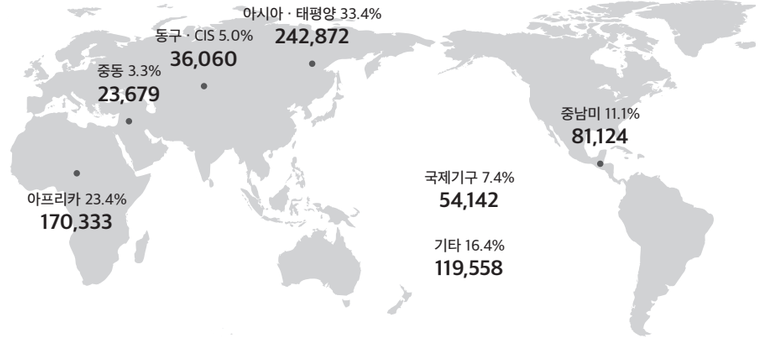
코이카는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 1991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 협력 및 우호 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코이카는 5P(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 Partnership, 사람·평화·번영·환경·파트너십)의 가치에 집중하여 지금까지 축적해 온 개발협력 경험과 다양한 기술을 융합해 더욱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코이카 지역별 지원

(단위: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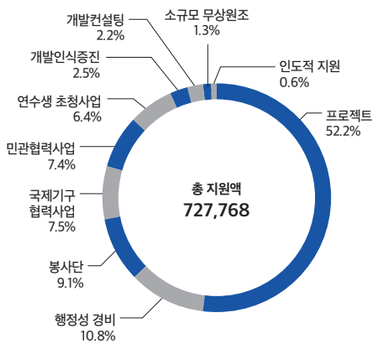
총 지원액 727,768

* 오세아니아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분류.
다국지원제외
** 미분류 지역에는 국가배분이 불가능한 다국가 사업, 행정성경비 및 개발인식증진비, 긴급구호 비용 포함



코이카 사업유형별 지원

(단위: 백만 원, %)



프로젝트	379,613
행정성 경비	78,866
봉사단	66,155
국제기구 협력사업	54,446
민관협력사업	53,657
연수생 초청사업	46,819
개발인식증진	18,441
개발컨설팅	15,934
소규모 무상원조	9,790
인도적 지원	4,047
계	727,768

* 봉사단은 일반 해외봉사단, 협력요원, 협력의사, NGO 봉사단, WFK-과학기술지원단, WFK-청년봉사단, WFK-대한민국 IT 봉사단, WFK-중장기자문단, WFK-퇴직전문가, 글로벌 협력 의료진 포함

* 소규모 무상원조는 현금 지원 포함

코이카 분야별 지원

(단위: 백만 원, %)

교육 13.8%
107,865

보건의료 18.5%
134,361

공공행정 17.3%
125,955

기술환경에너지 15.0%
109,075

농림수산 12.4%
90,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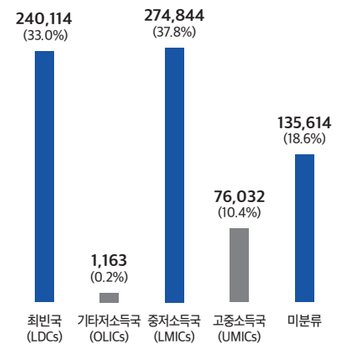
긴급 구호 1.6%
11,465

기타 21.5%
156,165

* 기타는 KOICA 5대분야(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 및 긴급구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행정비용, 개발인식증진 비용, 난민지원, 비특정 분야

코이카 소득수준별 지원

(단위: 백만 원, %)



* 미분류는 국가배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지원액과 행정성경비, 개발인식증진비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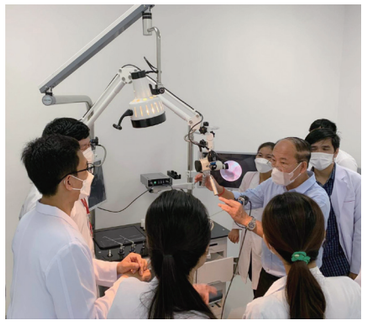
* 본 수치는 '22.8월 기준 잠정통계로 산출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코이카 최신 이슈

KOICA NEWS 모아보기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ODA 사업과 기관 경영에서의 디지털 전환 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최근, 개발 도상국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해 통계청과 MOU를 체결했으며, 행정안전부 '공공 데이터 제공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 개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코이카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M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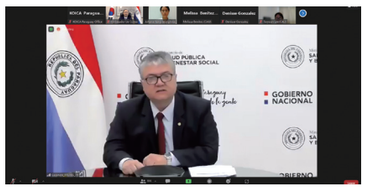
코이카, 캄보디아 유일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지원

3월 28일(현지 시각)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최고 수준의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이 문을 열었다. 1910년에 캄보디아에 설립된 유일한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인 양두엉병원은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 환자 포화 상태 등으로 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에 코이카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800만 달러를 투입해 개선 작업을 시작했고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및 주요 시설 신축 ▲첨단 의료 장비 제공 ▲한국 전문의 파견 및 의료진 역량강화 등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연간 12만여 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양두엉병원은 지난 3월 정식으로 개원했다. 앞으로 캄보디아 국민들은 민간병원보다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이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국민들이 우수한 의료시설을 갖춘 양두엉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한국 국민과 코이카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코이카는 양두엉병원 개원으로 이비인후과 진료와 수술 건수, 입원 환자 수, 외래 환자 수가 기존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흥경 주캄보디아 한국대사는 "올해는 한국과 캄보디아가 재수교한지 25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앞으로도 캄보디아의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이카-통계청 개발도상국 통계 역량 발전을 위한 MOU 체결

코이카는 3월 24일 통계청과 손잡고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디지털 전환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과의 이번 협약은 개발도상국에 효율적인 통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 역량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앞으로 코이카의 ODA 사업 전문성과 통계청의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자문 및 협력 사업을 위한 전문가 파견 등 포괄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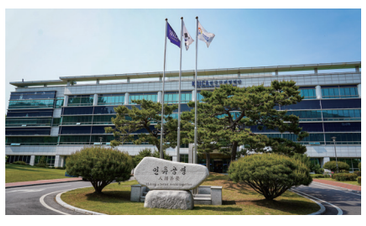
코이카, 노인 장기요양정책 없던 파라과이 정책 제언 위한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파라과이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 제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코이카는 2016년부터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정책 제언 온라인 컨퍼런스를 4월 28일(현지시각) 개최했다. 이날 코이카는 4년에 걸쳐 수행한 '파라과이 노인실태조사' 결과와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 모델을 현지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인구학적 배경을 고려한 통합적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한 이를 위해 앞으로 파라과이의 복지 정책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이카-AFoCO MOU 체결,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친환경 사업 강화

코이카는 5월 3일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아시아 지역 산림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도에 설립된 AFoCO는 산림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두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산림 탄소흡수원 강화를 위한 민·관·과학기술 협력을 맺고, 취약한 산림 생태계 복원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코이카, 행안부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코이카는 2021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코이카는 이번 평가에서 ▲기관 데이터 관리 및 추진 기반 조성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수요 맞춤형 데이터 개방을 통한 적극적인 운영 ▲기관 데이터 적극 개방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코이카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와 데이터 기반 경영을 위해 매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갱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코이카는 공공데이터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개발협력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 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JUNE



코이카, 디지털 혁신의 날 개최

코이카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개발협력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국민에게 한결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과제 전략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이카는 지난 5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디지털 혁신 주간'의 일환으로 '디지털 혁신의 날(Digital Innovation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올 한해 추진할 '디지털 업무혁신 프로세스'의 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코이카 임직원들이 참여해 디지털 혁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해커톤[1]을 열어 실효성 높은 혁신과제들을 발굴했다. 코이카는 '디지털 혁신주간' 동안 각 부서를 대상으로 올해 업무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굴하는 과제를 접수했으며, 이중 최종 과제는 6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1) 한정된 기간 내에 다양한 직군의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



코이카-한국국제교류재단 MOU 체결

코이카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국제개발협력과 공공외교 분야에서 협업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5월 12일 제주도 서귀포시 KF 본부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공공외교 분야 간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WFK) 파견 등 무상 개발협력 사업의 발굴·시행·평가 ▲개발협력 분야 공공외교 어젠다 발굴 및 교육·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코이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개발협력과 공공외교를 대표하는 두 기관의 전문성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이카, 협력국의 전자정부 구축 지원

지난 5월 10일 몽골에서는 '몽골 국가등록업무 시스템 운영지원 사업'으로 구축한 시스템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몽골 정부의 행정 효율화와 지역 간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코이카가 추진한 '몽골 국가등록제도 완비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몽골의 도시와 취약지역 간 국가등록 서비스 질의 격차를 해소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또한 5월 19일 나이지리아에서는 '나이지리아 디지털 거버넌스 기반환경 조성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 행사가 열렸다. 나이지리아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전자정부 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해, 나이지리아의 주민등록체계 구축과 전자정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반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이카는 이 외에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코이카, '2022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우수상 수상

코이카는 지난 6월 15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에서 준정부 부문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은 공공부문(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활동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준정부기관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은 4개 기관 중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종합 득점률 84.7%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코이카는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 인증 획득, 일자리 창출 확대, 대국민 안전 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민간 일자리 창출(약 7800개)과 코로나19로 병상 부족 현상을 겪을 당시 업무시설을 격리시설·생활치료센터로 전격 개방해 819명의 코로나 환자 치료를 도운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코이카,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신규 해외봉사단원 파견 재개

코이카는 최근 149기 일반봉사단원을 모집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멈췄던 해외봉사단원 신규 파견을 재개했다. 지난 2020년 3월 45개국에서 활동하던 1437명의 봉사단원을 전원 귀국 조치한 이후 26개월 만이다. 코이카는 5월 25일 볼리비아 파견을 시작으로 가나, 파라과이, 피지 등 10개국에 총 39명의 단원을 순차적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그간 코이카는 원격봉사 프로그램(E-volunteering)을 도입해 봉사단원들이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봉사단원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에 큰 도움이 되었다. 원격봉사는 파견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단원들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 28개국, 177개 기관에 총 234명의 단원이 참여했다. 수혜자는 총 4만3889명에 달한다.

JULY



코이카 - UN ESCAP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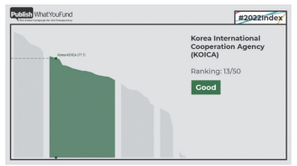
6월 23일, 코이카는 태국 방콕 유엔 콘퍼런스 센터에서 UN ESCAP[1]와 「아·태지역 국가들 SDGs 달성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지역/다자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9년 2월에 체결한 기존 협약의 갱신과 함께 ▲지속 가능 금융 및 기술 등을 통한 저탄소·기후회복력 개발 촉진 ▲성평등, 여성과 소녀의 경제적 권리 신장 및 역량 강화 ▲취약계층 지원 및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 촉진 ▲ICT·교통·에너지의 연결 강화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예방 노력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이 협약은 고질적인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태 지역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공공재인 '대기환경'을 개선해 더 많은 인구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United Nations Ecomomic and Social Co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 태국 방콕에 소재한 UN ESCAP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직속 5개 지역경제위원회 중 하나로서 1947년에 설립되었으며, 아·태 지역 경제 재건 및 개발, 경제활동 수준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22년 KOICA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코이카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제개발협력 대표기관, 청렴 KOICA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2년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한다고 7월 11일 밝혔다. 지속 가능한 청렴 목표 이행을 통한 부패비위행위 발생 제로화를 위해 ▲솔선수범 청렴경영 ▲글로벌 청렴경영 ▲신뢰받는 청렴경영 ▲함께하는 청렴경영을 4대 전략으로 세우고, 20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확정했다. 코이카는 불편부당한 사례를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 '갑질' 없는 '값진' 파트너십 캠페인과 함께 개발협력 파트너 대상 청렴해피콜을 실시하고, 전체 임직원 대상 청렴 윤리교육을 진행 중이다. 코이카는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7년부터 5년 연속 2등급을 받는 등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원조(ODA) 기관 최초로 준법경영시스템(ISO37301)-부패방지시스템(ISO37001) 통합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9월 준법경영시스템(ISO37301) 사후인증 획득을 앞두고 있다.



원조투명성지수 평가 2회 연속 '상위' 등급 획득, 공여국 기준 톱 3 차지

코이카는 7월 13일 영국 국제원조 투명성 캠페인 조직 PWYF(Publish What You Fund)에서 발표한 '2022년도 원조투명성지수(ATI) 평가'에서 2회 연속 상위 등급을 받았다. PWYF는 기관의 기관 계획·공약, 재정·예산, 사업 특성, 개발 데이터, 사업 성과 등을 평가해 2년마다 ATI[1]를 발표한다. 이번 평가에서 코이카는 2020년(70.7점)보다 10% 오른 77.7점을 획득해 상위 등급을 유지했으며 공여국 기준으로는 미국(5위), 독일(11위)과 함께 TOP3를 차지했다. 안지희 코이카 데이터혁신팀장은 "이번 평가에서 수검 이래 최고점을 받게 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 ATI는 5개의 그룹 지표로 구성된 총 35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 △최상위(VERY GOOD, 80-100점) △상위(GOOD, 60-79점) △평균(FAIR, 40-59점) △하위(POOR, 20-39점) △최하위(VERY POOR, 0-19점) 등 5개 그룹으로 분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KDRT, 'WHO 인증' 획득

지난 6월 15~16일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주관 긴급의료팀(EMT)[1]인증 평가에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세계 응급의료팀 중 35번째로 TYPE 1 Fixed[2] 등급을 획득했다. KDRT는 2007년 재난이 발생한 국가의 피해 감소와 복구, 인명구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파견인력으로 구성한 긴급의료팀이다. KDRT는 2011년부터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국제구조대 역량 평가에서 최상급인 'Heavy' 등급을 받고 2016년 재인증 받았으며, 이번 WHO 인증 획득은 KDRT의 세계적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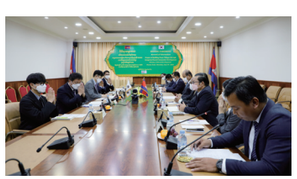
1) WHO는 각국 정부·비정부기구 응급의료팀의 역량에 따라 △TYPE 1(외래 응급환자 치료 관련, Mobile-Fixed로 나뉨) △TYPE 2(입원환자·외과·산과 수술 관련) △TYPE 3(중환자실 포함 복잡 입원환자·복잡수술) △전문가 그룹(특수의료전문)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평가·인증을 하고 있음.

2) TYPE 1 Fixed : 정부 비정부기구 긴급의료팀 역량에 따라 피해국 도움 없이 대원 29명이 자급자족하며 하루 100명의 외래환자를 최소 14일간 치료할 역량을 갖춘 팀에게 부여.



필리핀 조세 분야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6월 21일 코이카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전자정부 시스템 개통식을 열고 '필리핀 조세 분야 전자정부 구축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필리핀의 기존 국세 납부 시스템은 세목에 따라 각각의 개별 데이터베이스로 운영되어 비효율적이었고, 노후화된 서버와 오래된 프로그램 활용으로 인해 전산 오류가 빈번했다. 이에 코이카는 필리핀의 조세 분야 전자정부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필리핀 조세행정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세무행정 시스템 구축 ▲전산실과 기자재 지원 ▲조세 분야 업무 담당자와 납세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추진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필리핀의 웹 기반 조세 업무 플랫폼 EIS(E-invoicing system, 전자세금계산 시스템)는 납세자인 기업들이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조사, 부과, 납부, 확인, 발급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개발된 시스템은 올해 필리핀 주요 100대 대형 법인 세무행정 시스템과 연동해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필리핀 전 지역, 전 납세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필리핀 조세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 북서부 농촌 지역 평화마을 조성 사업을 위한 협의의사록 체결

지난 6월 9일(현지 시각) 프놈펜에서 코이카와 캄보디아 농촌개발부는 '캄보디아 북서부 지역 농촌종합개발을 통한 평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의사록을 체결했다. 코이카는 캄보디아를 비롯해 베트남, 라오스 등 메콩 지역 국가에서 지뢰 제거-피해자 지원-농촌개발을 연계한 '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캄보디아 내에서도 개발이 가장 더딘 북서부 3개 주(파일린, 바탐방, 반데이민체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코이카는 이날 체결한 약정에 따라 ▲주민참여형 농촌 생활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 가치사슬 개선 ▲농촌개발 거버넌스 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AUGUST



코이카, 유엔 남남협력사무소 '7월의 파트너'로 선정

지난 7월 27일 유엔 남남협력사무소(UNOSSC)는 코이카를 '7월의 파트너'로 선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신흥공여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제3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코이카의 삼각협력[1] 방식이 국제사회에서 우수 사례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UNOSSC의 파트너 선정으로 코이카는 한 달간 '남남협력 갤럭시'[2] 홈페이지에 '카메룬 전자정부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나이지리아 벤치마킹 삼각협력', '한-인니-동티모르 태양광 에너지 접근성 향상 사업', '파라과이 항공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한-브라질 삼각협력'을 삼각협력의 우수 사례로 소개할 수 있었다. 코이카는 앞으로 2021년에 발족한 '믹타(MIKTA)'[3] 개발협력기관 협의회를 활용해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를 지역별 삼각협력을 위한 한국의 주요 파트너로 삼고 남남·삼각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1)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은 선발 개도국이 후발 개도국을 지원하는 형태의 국제개발협력 체제를 의미.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은 형성된 남남협력에 하나 이상의 전통적 공여국 또는 국제기구가 참여해 재정, 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남남협력을 보완하는 방식을 뜻함.

2) UNOSSC 자체 남남협력 플랫폼

3)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등 5개국 간의 협의체



코이카-외교부 9월 1일 '제15회 서울 ODA 국제회의' 개최

코이카는 외교부와 함께 9월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지평 확대'를 주제로 '제15회 서울 ODA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된 서울 ODA 국제회의는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제가 함께 모여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다.
이번 서울 ODA 국제회의는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가 견지해야 할 개발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정부의 개발협력 정책기조를 공유하고, 글로벌 위기 대응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ODA의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올해 회의는 코이카 공식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 기념식 개최

8월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1]을 맞아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함께 서울 성동구에 있는 '언더스탠드 에비뉴 아트스탠드'에서 세계 인도주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을 비롯한 국내외 인도적 지원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도주의 활동상이 담긴 사진과 지원 물품 등을 둘러보고 난민 신청 체험, 우크라이나 등 분쟁국의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행사는 7개 국제기구와 12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한국과 전 세계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알리는 '일년에 하루쯤: 분쟁과 나, 그리고 인도주의' 전시회가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우리 정부는 코이카를 통해 UN유엔 등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와 함께 전쟁 피해국이나 재난 지역에서 구호물자를 제공하고 임시 진료소를 설치하는 등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1) 2003년 8월 19일 이라크 내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희생된 22명의 각국 인도주의 활동가와 지역 주민을 추모하기 위해 2008년 유엔에서 정한 기념일



동티모르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 협의의사록 체결

7월 22일 코이카는 동티모르 재무부와 함께 '동티모르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UNDP)'에 대한 협의의사록을 체결했다. 동티모르 정부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협력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귀국한 해외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동티모르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코이카와 UNDP는 620만 달러를 투입해 ▲청년 취업을 위한 기술, 역량, 지식 습득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통합적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귀국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청년 창업 및 사업 확장을 위한 기술, 지식, 서비스 습득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라과이 최초의 노인 보건의료복지센터 개소

지난 8월 8일 중남미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 '산토도밍고 노인 보건의료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파라과이에서 최초의 통합 노인 돌봄 센터가 한국의 지원으로 설립된 것이다. 코이카는 2016년부터 파라과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우리나라 노인복지 모델을 토대로 한 현지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을 제언하고 이를 구현할 노인 의료복지센터를 신축했다. 센터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 1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58개의 병실을 보유했으며, 개소로 인해 매달 약 5000명 이상의 노인 방문객이 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소식에 참석한 파라과이 베니테즈 대통령은 "본 센터는 그동안 파라과이 의료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노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젊은 세대가 진 빚을 갚는 것이다"라며 "한국 정부 및 코이카와 협력을 통해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이카는 센터의 개소로 인해 노인들의 간호, 진료 보조, 재활 서비스 지원 등 치료부터 요양까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 개발협력 고위급회의서 태평양 지역 경제·사회 협력 방안 논의

코이카 손혁상 이사장은 지난 8월 12일 바누아투의 수도 포트빌라에서 개최된 태평양도서국포럼(PIF)[1] 경제장관회의[2] 계기 제3차 개발협력 고위급회의에 우리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 회의는 태평양 도서국의 '2050 청색 태평양 대륙 전략(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3] 이행 방안과 대화 상대국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손혁상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태평양 도서국의 최대 관심사인 해양 환경보호 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PIF 회원국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보장, '청색 태평양 경제' 구현을 위한 해양 환경보호 및 자원 관리, 그리고 청정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코이카는 창립 이후 지난해까지 14개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누적 1억 97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하며 기후변화 적응과 해양수산 분야, 보건 분야 등에서 중점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1) PIF(Pacific Island Forum) : 1971년 창설된 태평양 역내 협의체로, 총 18개 회원국으로 구성. 한국은 1995년부터 대화 상대국으로 참여. 올해 PIF 정상회의는 지난 7월 11일 피지 수바에서 개최

2) PIF 경제장관회의(PIF FEMM) : PIF에서 주관하는 장관급 회의 중 하나로, 각국 경제부 장관이 모여 역내 경제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

3) 2050 청색 태평양 대륙 전략 : 태평양 도서국들이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비전을 담은 전략으로 2022년 7월 14일 PIF 정상회의에서 채택

SEPTEMBER



세계 집단지성 모인 제주포럼서 세미나 개최

9월 14일, 코이카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개발-환경-평화 넥서스 접근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14~16일 '갈등을 넘어 평화로: 공존과 협력'이란 주제로 열린 제17회 제주포럼의 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주포럼은 세계의 지성인들이 평화의 섬 제주도에 모여 지구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외교부 등 국내외 30여 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66개 세션을 준비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윤영 코이카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는 축사를 통해 "코이카는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넥서스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2022-2026년도 중장기 경영 목표의 16대 전략과제 중 첫 번째 과제를 '협력국 복합 위기 대응 및 평화 구축'으로 선정하고, 협력국 위기의 근본 원인을 밝혀 해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사회혁신기업 개발도상국 진출 지원 프로그램 'INNO-Lab A' 데모데이 개최

코이카의 개발협력 분야 초기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INNO-Lab Accelerator(이하 이노랩A)'의 데모데이가 9월 1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노랩A는 글로벌 개발협력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기업의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개발도상국 현지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 진출·확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데모데이 대상(1위)은 떠다니는 재배 시스템 '플로팅팜'을 캄보디아 톤레삽 수상마을에 보급하고자 한 '미드바르'가 차지했다. 미드바르에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됐으며, 이노포트 입주 기회도 주어졌다. 이노포트는 글로벌 개발협력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과 예비·초기 창업가를 위한 코이카의 사회혁신허브 사업이다. 개발협력 혁신가를 육성하고, 개발협력 분야의 취업 및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3월 탄생했다. 이노포트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노랩A는 올해 7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개발도상국 진출 및 사업 확장에 나서고자 하는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 수요에 따른 개발협력 분야 전문가 및 현지 전문가들과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고도화를 지원했다.



페루사무소, 페루 내 한국 NGO 기후변화·환경 분야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코이카 페루사무소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페루 내 한국 NGO의 기후변화·환경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파트너 역량 강화 워크숍'을 파라카스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페루 내 한국 NGO 관계자 및 봉사단원, 페루 환경부 관계자, 아마존 지역 말라리아 예방사업 관계자, 미국국제개발처(USAID) 환경사업 관계자 등 다방면의 전문가 및 시민사회 파트너 약 20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코이카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페루사무소 CP(환경보호 및 취약계층 회복력 강화)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관별 사업 성과가 공유됐다.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페루 정부의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정책, 통합적 접근을 통한 아마존 지역 말라리아 감소 성공 사례 등도 소개됐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6일에는 USAID의 'Clean Cities, Blue Ocean'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 피스코 지역을 방문해 인식 개선 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했다. 본 워크숍은 페루 내 한국 시민사회 파트너 기관들의 역량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해 우수 환경사업 발굴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오는 11월, 페루사무소는 페루 내 한국 NGO(기아대책·월드비전·프렌즈) 파견직원 및 봉사단과 함께 사업 성과 공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모로코 의료인력 온라인 교육과정 구축 지원 방안 연수 진행

코이카가 모로코 보건부 및 지역 보건국 공무원, 국립보건대학원 관련 실무자 7명을 초청해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주일간 방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수는 코이카가 추진 중인 '모로코 북부지역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1차 의료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 모로코 보건부가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수생들은 한국의 모자보건 의료 시스템, 고위험 산모 관리 방안, 의료 인력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방법 등을 배우고, 연세의료원의 온라인 교육과정 구축 및 적용 사례를 학습한다. 연세의료원과 글로벌케어 의료진 및 실무진과 함께하는 워크숍에도 참여해 모로코 실정에 맞는 의료 역량 강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 양국 간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본 연수는 코이카 ODA 사업의 일환으로, 연세의료원 제중원보건개발원과 국제보건의료 NGO인 글로벌케어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민간 부문 파트너십 구축 위한 특강 '민트초코' 개최

코이카는 '코이카 기업협력 자문위원과 함께하는 특강 시리즈 「민트초코 : 민간 파트너를 초대하는 코이카」'(이하 민트초코)를 단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0회 개최한다. 개발협력 생태계 내 민간 부문의 개발협력 참여 및 투자 유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단내 직원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 파트너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특강은 매달 다른 주제로, 대면(코이카 본부)과 생중계 비대면(Zoom) 방식을 병행해 개최된다. 특강 강사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이자 코이카의 기업협력 자문위원이 대거 참여한다.

9월에는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PSE(민간 부문 참여)와 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10월에는 김승현 아주IB투자 투자이사가 '개발협력 민간 참여 주체 이해하기'란 주제로 얘기를 풀어갈 예정이다. 민간협력 분야에 관한 다양하고 실무적인 주제를 다루는 특강 시리즈 민트초코가 단내 직원들의 개발협력 민간 참여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 발굴 및 관리·평가 역량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식 공유를 통한 민간 파트너십 활성화 및 전사적 중장기 경영 목표 달성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는 여전히 질병과 기후변화, 물 부족,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역량과
비전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코이카는 교육, 보건의료, 교통, 과학기술혁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나아가 세계와 협력하겠습니다.

PEOPLE PEACE PARTNERSHIP PROSPERITY PLANET

사람 평화 번영 환경 파트너십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국가별 지원 프로그램과 해외봉사단 파견, 초청 연수, 국제기구 · NGO · 기업과의 협력, 재난복구와 긴급구호 등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ODA)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KOICA

발행인 손혁상 **등록일자** 2022년 10월 13일 **발간등록번호** 홍보 2022-01-074 **발행일** 2022년 10월 13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전화** 1588-0434 **팩스** 031-740-0260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한국국제협력단 홍보실 **제작** amPR **인쇄** 규장티피씨

blog https://blog.naver.com/prkoica www.instagram.com/officialkoica/ www.facebook.com/officialKOICA KOICA 검색

홍보자료
홍보 2022-01-074

KOICA

MAGAZINE KOICA
모바일 다운로드